

“뭐든지 하세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김리나 작가



김리나 화가 (지체장애), '희망 풍선'

사랑의열매 

2023
05

사랑의열매는 투명합니다

사랑의열매는 전국 약 3만 개 협력 기관들을 지원하며, 자체 모니터링, 정부감사, 국정감사를 받는 대한민국 대표 나눔플랫폼입니다.

기부금의 **94%**가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전달됩니다.

25 years 대한민국 나눔플랫폼
COMUNITY CHEST OF KOREA 25TH ANNIVERSARY
사랑의열매



2022년 지원금액
7,334억

2022년 모금금액
7,925억

연말에 모금액이 집중됨에 따라 일부 모금액은 다음해에 지원됩니다



지원대상	아동 / 청소년 1,578억	노인 954억	장애인 469억	여성 / 다문화 343억	위기가정 1,852억	지역사회 2,035억	해외 / 북한 103억	
사업분야	기초생계 3,857억	교육 / 지원 915억	주거 / 환경 735억	보건 / 의료 528억	심리 / 정서 285억	사회적 돌봄 강화 659억	소통 / 참여 확대 210억	문화복지 해소 145억

[해당 지원내역은 2022년 사랑의열매 나눔기록입니다. 지난해 7,334억 원으로 전국 약 3만 개의 협력 기관과 함께 40만 명의 이웃을 지원했습니다.]

숨은 열매 찾기



나만 알고 있기 아까운 착한가게를 소개해주세요



● 경주에 있는 착한가게 '운수대통닭갈비'를 추천하고 싶어요. 줄 서서 기다려야 할 정도로 찐 현지인 맛집이더라고요. 푸짐함은 기본이고, 매콤 달콤 양념에 간이 잘된 닭고기가 정말 맛있었어요. 사장님이 직접 닭갈비를 볶아주시니 편했고요. 직원분들도 모두 친절하시니까, 과연 착한가게는 다르구나 싶더라고요. 요즘 핫하다는 황리단길에 자리해 위치도 너무 좋았고요. 경주에 가신다면 운수대통닭갈비 착한가게에 꼭 가보세요! -서울시종로구 최○○

- 상호명
운수대통닭갈비
- 주소
경북 경주시 원호로 104-15
- 전화
0507-1387-4356



참여 방법 1

- 1 착한가게 현판과 가게 내부, 또는 상품(음식) 사진을 찍는다.
- 2 사진과 함께 상호명을 적어 매달 20일까지 사랑의열매에 이메일을 보낸다.
사랑의열매 이메일 cckpr@chest.or.kr

참여 방법 2

또는 자신의 SNS에 #사랑의열매 #착한가게 태그를 추가한 후 관련 게시물을 올리면 끝

착한가게를 소개해준 분 중 추첨을 통해 세 분께 커피 기프티콘을 보내드립니다.



04 표지 이야기

갑작스러운 하반신마비,
그러나 붓으로 다시 일어난
김리나 작가

06 나눔 여행

봄바람 휘날리며...
그 섬으로 가자

10 매슬랭

대한민국 1세대 바리스타의 커피,
보헤미안박이추커피

14 그린 열매

참 쉬운 리필 스테이션 이용법

16 이웃 생활 백서

학교 폭력에 대처하는 실용 가이드

18 모두의 나눔

5월의 푸른빛을 품은
너희를 위하여

24 희망으로 채우는 세상

친환경 생활 실천을 위한 지구살림학교
인천 예꿈마을지역아동센터

28 내 인생의 한마디

세종 16호 아너 산장가든 정해석 대표

32 나눔리더

나눔리더 가입한 방송인
배동성·요리 연구가 전진주 부부

34 나눔인

대전 사랑의열매 제12대
유재욱 신임 회장

35 클라우드펀딩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한 청소년 뮤지컬

36 착한기업

충청남도 공공 기관 1호 나눔명문기업
충청남도개발공사

40 투명한 나눔

모아주신 사랑,
투명하게 전달합니다

42 다른 그림 찾기

43 전국 열매 이야기

부산·대구·울산·경북·경남·제주

56 이달의 아너 소사이어터

58 전국 지회 뉴스

68 나눔 만화

이달의 표지



○ 김리나 '희망 풍선'
72.7 × 60.6cm
oil on canvas

VOL. 193
2023.

05

사랑의열매

• 모든 촬영과 인터뷰는 방역 지침을
준수해 진행했습니다.

발행인 김병준

발행일 2023년 5월 / 통권 193호

발행처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21길 39 사랑의열매회관 6층

만든이 사랑의열매 커뮤니케이션본부

구독안내 전화 02-6262-3000

팩스 02-6262-3100

홈페이지 www.chest.or.kr

등록일 2003년 5월 13일

등록번호 서울중, 라00605

기획, 편집디자인 한국경제매거진(주)

02-360-4856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도서잡지윤리강령
및 잡지윤리요강을 준수합니다. 본지에 게재된
기사나 사진 등 시각 자료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사전 동의 없이 어떠한 형태의 전재·복제를
금합니다. 이 책의 내용은 발행처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개인정보 이용 내역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홈페이지(www.chest.or.kr)

하단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정기간행물 구독 혹은 구독 취소를 원하시는 분은

cckpr@chest.or.kr로 성함과 주소를 보내주세요.



〈사랑의열매〉는 FSC® 인증산림에서 개발 관리한
재료를 제작한 용지를 사용하였습니다.

“...희망을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사고, 그리고 찾아온 하반신마비라는 현실... 그러나 김리나 작가는 언제나 희망을 이야기한다. 글강은진 사진이승재

첫 표지작업, 기분 좋은 긴장감

김리나 작가를 찾았을 때 그는 <사랑의열매> 표지 마무리로 며칠 밤을 새웠으며 무척 피곤한 기색이었다. 많은 작업을 해보았지만 표지 의뢰는 처음이라 조금 떨렸다고 한다. 그럼에도 오랜만에 기분 좋은 긴장감이었노라 말한다.

“내 그림을 보고 나를 좀 알아봐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작가라면 누구나 그렇겠죠. 작년에 개인전 끝내고 조금 지쳐 있었는데, <사랑의열매> 표지 작업을 의뢰받고 떨리긴 했지만 작업에 활력이 됐어요.”

김리나 작가는 <사랑의열매> 표지를 정말 잘 그리고 싶었다고 한다. 구상부터 완성까지 무려 두 달이 넘게 걸렸다. 그만큼 고심했다. 김리나 작가의 표지 작품 제목은 ‘희망 풍선’이다. 멋진 열기구에 매달린 의자는 하늘로 자유롭게 날아오르고 있다. 그 주위엔 빨간 사랑의열매 배지가 마치 의자를 지키듯 맴돌고 있다. 의자는 김리나 작가를 투영하는 트레이드마크다. “사랑의열매라고 하면 아주 편안한 느낌이예요. 사람들을 보듬어준다고

할까요? 제겐 그랬어요. 그래서 무엇보다 희망을 전하고 싶었지요. 의자에 앉아 상상하는 어디라도 갈 수 있을 것 같지 않나요(웃음)”

소망하고 싶은 작품이었으면

사실 대학에서 디자인을 전공한 김리나 작가는 졸업 즈음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10년 가까이 병원에서 시간을 보냈다. 열심히 재활한다면 다시 걸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그러다 걷기를 포기한 건 8년쯤 지난 후였다. 그리고 그때 입시에 맞춰 선택한 디자인이 아닌 순수 미술에 대한 꿈을 다시 떠올렸다.

“다시 그림을 그려보자 하고 붓을 잡았는데, 손에 잘 안 잡히는 거예요. 붓을 힘 있게 잡는 데만 1년 정도 연습한 거 같아요. 그리고 다시 대학에 편입해서 본격적으로 그림을 공부했죠.”

김리나 작가는 서울에서 개최한 첫 개인전의 기쁨을 지금도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다. 전국 각지에서 친분이 있는 모든 이가 그의 개인전을 축하하기 위해 서울까지 일부러 와주어 큰 감동을

받았다. 작가로서 진짜 한 발 내딛는 기분이었다고.

“저는 장애를 이겨내고 무언가 이룬 대단한 사람은 아니예요. 다만, 무엇이든 하라고 조언하고 싶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거든요.”

짧지만 깊은 여운을 남기는 말이다. 덧붙여 그는 그림 좋다는 찬사를 넘어 ‘잘 팔리는 작가’이고 싶다는 부끄러운 듯 웃었다. 희망의 달 5월이라 했던가. 그의 희망도 꼭 이루어지길 빌어본다. 🍀

작가 주요 profile

- 2011 대구대학교 조형예술대학 회화과 졸업
- 2011 평창올림픽기념예술축전 (인사동)
- 2016 희망축제 공모전 대상 수상
- 2022 <기억을 그리는 시간들> 7회 개인전, 단체전 100여 회
- 2023 계명대학교 예술대학원 석사과정
- 현) 대구장애인미술협회 교육팀장, 대구특수학교 사생대회 심사위원

갑작스러운 하반신마비, 그러나 붓으로 다시 일어난 김리나 작가



“내 그림을 보고 나를 알아봐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요. <사랑의열매> 표지를 통해 많은 이웃을 만나게 돼 무척 설레요!”

봄바람 휘날리며... 그 섬으로 가자

행정안전부가 2023년 '찾아가고 싶은 봄섬' 다섯 곳을 선정했다. 봄의 절정 5월을 만끽할 수 있는 볼거리와 즐길 거리 가득한 봄, 봄섬으로 떠나보자.
글 강은진 사진 한국관광공사 사진 갤러리, 각 지자체 문화관광과, 관매도 관광누리집



울긋불긋 꽃동산 하화도

이름부터가 꽃섬이다. 여수시 화정면에 속하는 하화도(下花島)는 임진왜란 중 인동 장씨가 가족들과 함께 뗏목에 의지해 피란하던 중 동백꽃, 구절초, 진달래꽃 등이 아름답게 피어 있는 섬에 정착하면서 꽃섬이라 불렀다고 한다. 지금도 이곳은 이름 모를 야생화들이 1년 열두 달 피고 지며 향긋한 단내가 흘러넘친다. 초등학교도 다닐 수 있는 쉬운 코스인 꽃섬길과 출렁다리를 가족과 함께 걸으면 수려한 풍광과 함께 진달래, 짙레꽃, 유채꽃, 구절초 등 다양한 꽃을 즐길 수 있으니 봄날과 가장 어울리는 섬으로 손꼽힐 만하다.

- 📍 전남 여수시 화정면 아래꽃섬1길
- ☎ 061-659-3876(여수시 관광과)
- 🌐 www.yeosu.go.kr/tour/information (여수문화관광)

흐드러지게 핀 유채꽃 세상

관매도

봄에도 클라이맥스가 있다면 아마도 관매도에서 만날 수 있을 것이다. 3만 평 유채꽃 화원의 색노란 꽃 파도가 일렁이는 풍광은 비현실적일 정도로 아름답기 때문이다. 다도해해상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조도 6군도 중 대표 섬인 관매도는 유채꽃의 수려한 절경뿐 아니라 천연기념물인 후박나무가 있고, 최근 자생풍란을 복원하고 있어 생태 관광지로서 가치가 높은 곳이다. 고운 모래와 맑은 바다가 있는 관매도 해변, 옥황상제가 실수로 지상에 떨어뜨렸다는 전설이 내려오는 콩돌 등 관매8경을 둘러보는 재미도 있다.

📍 전남 진도군 조도면 관매도길 71 ☎ 061-540-3417(진도군청 문화관광과) 🌐 www.gwanmaedo.co.kr



분홍빛 무드 속으로

한산도

통영을 대표하는 섬 한산도는 한려해상국립공원의 시발점이자 한산도대첩이 벌어진 곳으로, 연중 방문객들이 끊이지 않는 곳이다. 특히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 당시 조선을 침략한 왜군 함대를 한산도 앞바다에서 궤멸시킨 한산도대첩을 치른 역사적 장소다. 한산대첩 기념비, 충무사, 한산정, 제승당 등 충무공의 유적이 산재한 한산도의 봄은 분홍빛 무드로 가득하다. 2018년 완전 개통된 한산일주도로를 중심으로 푸른빛 바다와 핑크빛 벚꽃이 이어진다. 그뿐 아니라 망산을 가득 수놓은 진달래와 마을마다 지천인 붉은 겹보사꽃 만첩홍도까지 채도를 달리한 분홍빛이 섬을 화사하게 물들인다. 봄철에 한산도를 방문하면 역사적 현장을 둘러봄과 동시에 아름다운 벚꽃길, 캠핑, 오토 관광 등도 즐길 수 있어 좋다.

📍 경남 통영시 한산면 ☎ 055-650-2570(통영관광정보센터) 🌐 www.utour.go.kr/utour(통영관광포털)

봄기운 만끽하며 걷기 좋은 섬

장봉도

인천 옹진군 장봉도는 수도권에서 당일치기로 다녀오기 좋은 섬으로 유명하다. 영종도에서 가까운 데다 하루 스무 편(편도)에 달하는 운항 횟수도 접근성을 높인다. 장봉도는 북서에서 남동 방향으로 길게 뻗은 섬으로, 길고 봉우리가 많다 하여 긴 장(長)자와 봉우리 봉(峰)자를 써 장봉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무엇보다 해안을 따라 도보로 여행하기 좋은 코스가 조성되어 있고, 거의 전 구간에서 바다를 조망할 수 있어 매력적인 데다 해안을 걸으면서 파도·조류·해류 등으로 침식된 해식애의 절경까지 즐길 수 있어 매력적이다. 은빛 낙조로 유명한 가막머리 전망대를 터닝 포인트로 각자 일정에 맞게 코스를 짜면 된다. 자세한 운항 시간표는 세종해운과 한림해운 누리집에서 확인하자.

📍 인천시 옹진군 북도면 장봉리 ☎ 032-899-3410(북도면주민자치센터) 🌐 jangbongdo.com(장봉도닷컴)



보랏빛 가득한

반월도·박지도

‘퍼플섬’이라는 이름이 더 익숙한 전남 신안군의 반월도·박지도, 1km 남짓 거리를 두고 마치 쌍둥이같이 사이좋게 붙어 있는 두 섬은 온통 보랏빛 세상으로 독특한 풍광을 자랑한다. 두 섬을 잇는 해상 보행교부터 마을 돌레길, 건물 지붕은 물론 창틀이며 주민들이 사용하는 식기까지 모두 보라색이다. 게다가 봄부터 피기 시작하는 라일락, 라벤더, 접시꽃, 버들마편초, 아스타 등 보라색 꽃이 피는 수목을 섬 곳곳에 심어 가을까지 보라색 꽃을 볼 수 있다. 라벤더가 절정을 이루는 5월이면 라벤더 축제(5월 19~28일)가 열리기도 한다. 2021년 ‘UN 세계 최우수 관광마을’과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의 별’로 선정되는 등 핫한 여행지 중 하나다. 인생 샷을 건지기엔 이만한 데가 없다. 입도 시 입장료(5,000원)가 있으며 보라색 옷을 입고 방문하면 무료다. 🌸

📍 전남 신안군 안좌면 ☎ 061-271-1004(신안군청) 🌐 tour.shinan.go.kr(신안군 문화관광)



대한민국 1세대 바리스타의 커피,
보헤미안박이추커피

“가장 맛있는 커피는 운명을 바꿔주는 커피”

강릉은 커피의 도시다. 하물며 바닷가 근처 자판기 커피까지
맛있다는 말이 있을 정도. 이 같은 명성은 2000년에
커피 명인인 박이추 대표가 한적한 바닷가 마을에 터를
잡으면서 시작되었다. 글이선희 사진서법세



대한민국 커피의 전설

커피를 몰라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한 번쯤 '박이추' 이름 석 자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박이추 대표는 우리나라 1세대 바리스타로, 1980년대 이후 국내에 핸드 드립 문화를 알린 '1서3박(서정달·박원준·박상홍·박이추)' 중 한 명으로, 유일하게 현역으로 활동 중이다. 30년 넘게 무거운 주전자를 들다 보니 손목에 무리가 가지만, 여전히 로스팅은 물론 커피 추출도 직원에게 맡기지 않고 혼자서 최소 하루 100잔에서 많게는 200잔까지 내린다. '전설의 바리스타', '커피 명인'이라는 수식어가 결코 과언이 아니다.

커피 애호가들의 성지이자 관광객의 필수 코스가 된 보헤미안박이추커피 본점은 평일 오전에도 그의 커피를 맛보고자 하는 이들로 북적였다. 박이추 대표와 인사를 나누자마자 "일단 커피부터 마시고 시작하시죠"라는 답이 돌아왔다. 추출실로 들어간 박 대표가 허리를 깊숙이 숙여 신중하게 커피를 내리는 모습은 경건하기까지 했다. 물을 주입한 후 핸드 드립 주전자를 내려놓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이윽고 갓 추출한 보헤미안 믹스 한 잔이 테이블 위에 놓였다. 커피에 대한 식견이 짧지만, 이것 하나만큼은 단언할 수 있다. 정말 맛있는 커피를 맛보았다고.

“생두가 좋아야 한다, 스페셜티 커피가 맛있다 말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맛있는 커피는



핸드 드립 방식으로 커피를 추출하는 박이추 대표 모습

팔자와 운명을 바꾸는 커피라고 생각해요. 커피 한잔을 마시며 인생의 전환점을 찾고, 삶이 달라진다면 그게 바로 진짜 맛있는 커피죠. 물론 이런 커피의 힘을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모르는 사람도 있지만요.”

23년째 강릉살이 중

박이추 대표는 젊은 시절부터 곳곳을 자유롭게 유랑하듯 다녔다. 그런 그를 보고 한 커피 연구가가 ‘보헤미안’이라 부른 것이 오늘날 상호명이 된 것. ‘보헤미안’이 어떻게 강릉에 정착한 것일까. 일본에서 커피 공부를 마치고 1988년 서울 혜화동에 ‘가베 보헤미안’을 오픈했다. 이후 안암동으로 옮겨 10여 년간 서울의 대표 핸드 드립 커피 전문점으로 큰 사랑을 받았다. 유명세에 피로감을 느낀 박 대표는 2000년 무렵 한적한 지금의 강릉시 연곡면으로 자리를 옮겼다. 하지만 그의 커피를 마시기 위해 사람들은 점차 이곳으로 몰렸고, 차츰 카페들이 하나둘 들어서며 강릉은 커피의 도시로 거듭났다.

“2년 뒤쯤 경북으로 자리를 옮길 예정이에요. 지금 여기가 편하긴 하지만, 사람이 많아서 좀 더 조용한 곳에서 커피와 가까워지고 싶어요. 커피를 배운 지 35년이 넘었지만 커피를 내리는 일은 여전히 어렵고 새로워요. 커피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려고요.”

한때는 커피에 미친 듯이 탐구한 적이 있었다. 커피 내리는 일은 배우면 배울수록 더 어려웠고,

1 대한민국 바리스타 1세대로 여전히 현역으로 활동 중인 박이추 대표
2 박이추 대표가 가장 좋아하는 보헤미안 믹스



알아야 할 것 또한 끝이 없었기 때문. 커피 명인으로 불리는 지금도 무뎠지 않지 않기 위해 로스팅할 때마다 미세한 변화까지 성실히 기록하고, 날마다 대여섯 잔씩 커피를 마시며, 틈나는 대로 책을 읽을 정도다. 문득 궁금해졌다. 그에게 커피란 무엇인지 말이다.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커피를 위해서 커피를 만듭니다. 커피가 주인공이고 저는 제 빛깔과 색깔을 내기 위해 도와주는 사람이라고나 할까요. 커피를 내릴 때 역시 마시는 사람을 생각하지 않아요. 커피만 보고 커피에만 집중할 뿐이죠.”

3 강릉시 연곡면 홍칠목길에 있는 보헤미안박이추커피 본점
4 카페 내부 모습. 오른쪽에 있는 문을 열면 박 대표가 많은 시간을 보내는 로스팅룸으로 이어진다.

커피는 나눔의 향을 담아

박이추 대표는 2014년 강원 사랑의열매 착한가게에 가입한 후로 9년째 나눔을 이어오고 있다. 보헤미안박이추커피 본점 카운터 옆에는 사랑의열매 착한가게임을 알리는 현판이 걸려 있다. 카운터는 음료값을 계산하는 본래 목적 외에도 박이추 대표의 핸드 드립 추출 모습을 가장 가까이에서 볼 수 있어 손님들의 관심이 가장 많이 쏠리는 곳이기도 하다. 사람들에게 착한가게를 자연스럽게 알릴 수 있는 최적의 장소인 셈이다.

“이런 기부 프로그램이 있다는 걸 우연히 알게 돼 바로 가입했어요. 커피로 받은 사랑을 지역사회에 보답하고자 고심하던 때라 ‘이거다’ 싶었죠. 상호명인 ‘보헤미안커피’로 기부하는 거라 결국엔 커피로 나눔을 실천하는 것이니 제격이었어요.”

착한가게 가입 외에도 커피로 하는 나눔은 또 있다. 2009년 시작한 강릉커피축제에 매년 500만~900만 원 상당의 커피를 무료로 제공하며 적극적으로 지원해온 것. 현재 강릉커피축제는 매년 수많은 관광객이 찾아오며 우리나라 커피 문화의 한 축으로 자리 잡았다. 착한가게와 축제 커피 지원 등 나눔의 이유를 묻자 박 대표는 “어려움이 있으면 다 함께 힘을 합쳐 해결해나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박이추 대표는 평생 커피만 좇았는데, 그가 지나온 길에는 많은 것이 달려져 있었다. 맛있는 커피는 운명을 바꾼다는 그의 지론처럼 말이다. 그래서 박이추 대표의 커피는 우리 모두에게 ‘맛있는 커피’다. ♡

참 쉬운 리필 스테이션 이용법

*리필 스테이션이란 포장 용기 없이 내용물만 판매하는 곳으로,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것은 물론 일반 제품보다 저렴하다. 하지만 낯선 이름만큼이나 생소한 이용 방법에 리필 스테이션 방문을 망설이는 이들을 위해 직접 '용기' 없는 리필 체험에 나섰다.

글 이선희 사진 서범세 촬영 협조 알맹상점 참고 자료 한국소비자원

*리필 스테이션에서는 크게 이머용품(샴푸·보디 워시 등), 세탁용품(세탁 세제·섬유유연제 등), 화장품(토너·로션 등) 제품종을 판매한다.



1 리필 제품이 담긴 벌크 통 2 용기를 준비하지 못한 사람을 위해 구비한 친환경 용기들 3 펌프를 누르면 제품을 용기에 담을 수 있다.

리필 스테이션 방문 전 알아두어야 할 필수 정보

○ **일반 상품 대비 평균 41.8% 저렴** 지난 2월 한국소비자원이 리필 스테이션 주요 판매 상품 가격을 조사한 결과, 리필 스테이션 상품 가격이 동일한 일반 상품 정가 대비 평균 41.8%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적으로 샴푸는 52.1%, 워시류(보디 워시·핸드 워시 등) 47.3% 가격 차이를 보였다. 특히 샴푸는 리필 스테이션 상품이 최대 64% 저렴했다.

○ **전용 용기 필수 사용 여부 확인** 업체별로 전용 용기만 사용해야 하는 곳이 있다.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소재를 주로 활용하며, 가격도 업체별로 다르다. 전용 용기 사용 여부는 방문 전 꼭 확인해야 한다.

○ **용기 사용 전 물기 제거 필수** 반면 소비자가 직접 준비한 용기를 사용할 수 있는 곳도 있다. 다만 물기가 있거나 내용물이 남은 용기를 반복 사용하면 여러 가지 염증과 패혈증을 일으키는 녹농균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용기 사용 전 물로 깨끗이 헹구 잔여물을 모두 제거한 후 햇볕이 잘 들고 통풍이 잘되는 곳에 두어 물기를 완전히 없앤 다음 사용해야 한다.

○ **탄소 중립 포인트 챙기기** 일상에서 탄소 중립 생활을 실천하면 이용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포인트)를 지원하는 제도다. 총 11개 실천 항목 중 리필 스테이션 이용도 포함된다. 1회 이용 시 2,000원이 적립되며 인센티브는 1인당 1년에 최대 7만 원을 지원한다. 단 모든 리필 스테이션에서 탄소 중립 포인트를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므로 방문 전 탄소 중립 포인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것.

☑ 탄소 중립 포인트 녹색생활실천 www.cpoint.or.kr/netzero



2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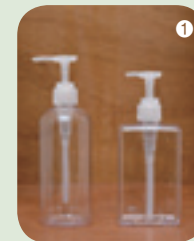


리필 스테이션 직접 이용해보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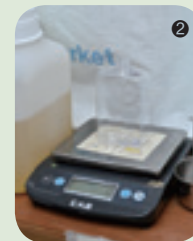
처음엔 어색하고 낯설었지만, 매장에 비치해놓은 이용 방법을 천천히 읽으면서 따라 하니 어렵지 않았다. 또 담은 리필 제품은 예상한 가격보다 훨씬 저렴해서 만족스러웠다. 다만 대부분의 리필 스테이션에서는 친환경 브랜드 제품만 취급하고 있어 평소 해당 브랜드 제품을 써본 적이 없으면 생소하게 느낄 수 있다. 또한 이번에 이용한 매장은 제품 종류가 다양해 비교하며 원하는 제품을 구입할 수 있었다. 하지만 공간적 여유가 없는 리필 스테이션의 경우 제품을 한정적으로 비치해 선택의 폭이 좁다. 방문 전 어떤 제품이 있는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다. 🍀

리필 스테이션 이용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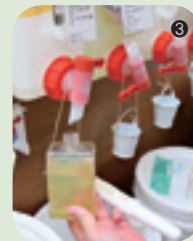
① 제품을 담은 용기를 준비한다. 미처 준비하지 못했다면 매장에서 준비한 용기를 구입할 수 있다. (매장마다 상이, 전용 용기 필수 사용 여부 확인 할 것) ② 용기를 저울에 올려놓고 영점에 맞춘다. ③ 구입하고 싶은 제품을 원하는 만큼 담는다. 제품마다 리필 단가가 다르므로 담기 전 확인 할 것. ④ 영점을 맞춰둔 저울에 용기를 다시 올려 무게를 측정한다. ⑤ 비치된 종이 테이프 또는 라벨지를 용기에 부착한 후 제품 무게와 리필 단가를 적은 다음 계산하면 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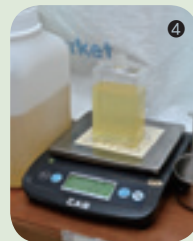
1



2



3



4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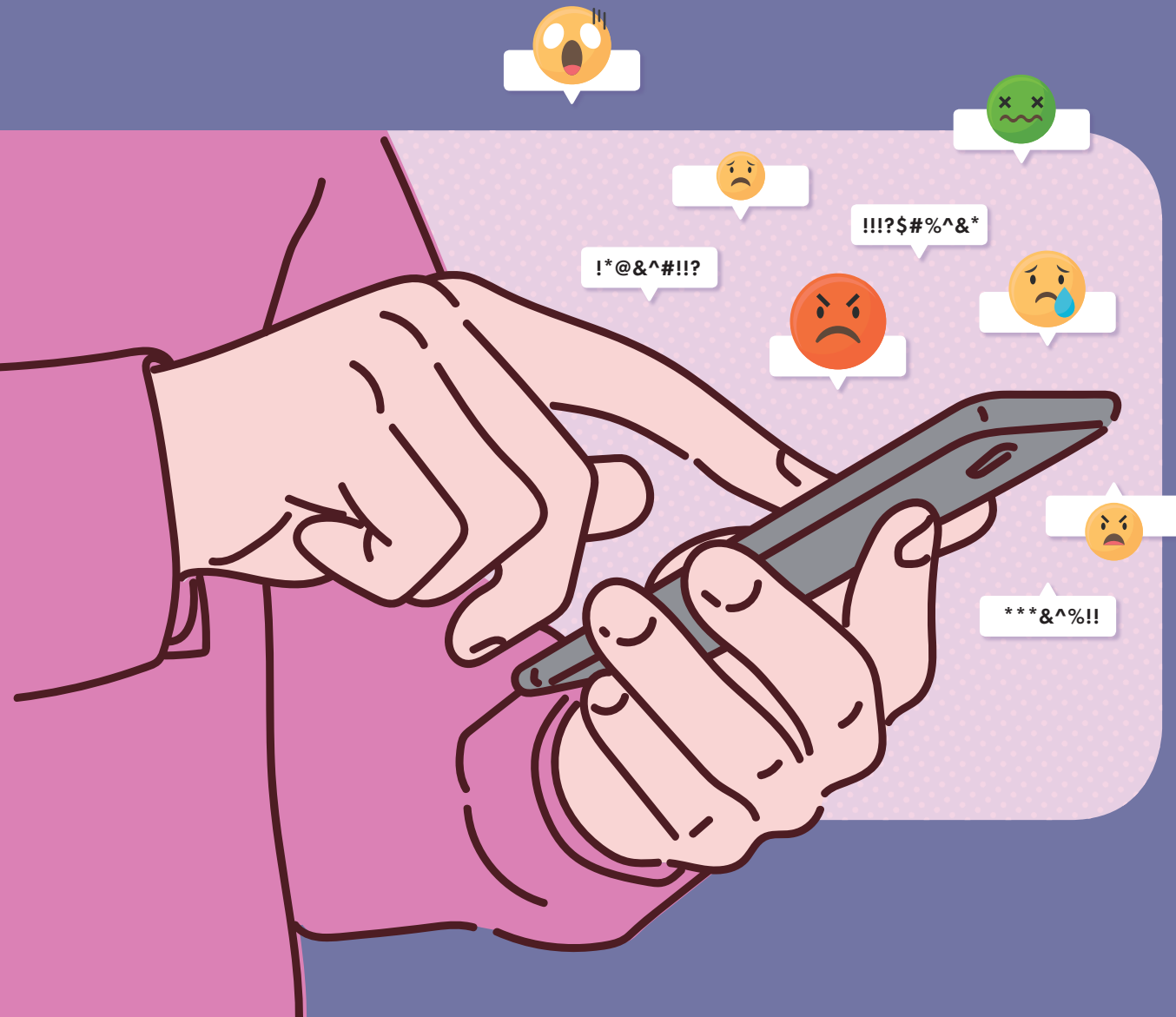
사이버 폭력에 멎드는 학생들

학교 폭력에 대처하는 실용 가이드

학교 폭력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민감한 현안 중 하나다. 요즘 일어나는 대부분의 학교 폭력은 '사이버 폭력'으로, 부모 세대와는 다른 양상이다. 온라인이라는 익명 공간에 숨어 더 은밀하고 집요하게 이루어진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글 강보라 자료 푸른나무재단(청소년폭력예방재단)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사이버 폭력은 스마트 기기와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가 일상화되면서 새롭게 나타난 학교 폭력 유형이다. 푸른나무재단에서 발표한 '2022 학교 폭력·사이버 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이버 폭력의 비중이 31.6%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2020년 16.3%의 2배, 2019년 5.3%에 비해 약 6배로 급증하는 추세다. 단순히 수치만 증가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디지털 플랫폼에 맞게 수법도 진화하는 상황이다.



끊임없이 진화하는 사이버 폭력 사례

사례 1

A 양은 낯선 이들에게 성적 조롱이 담긴 수십 통의 문자 폭탄을 받았다. 디지털 성범죄의 형태로 가해자가 SNS에 있는 A 양의 얼굴을 다른 신체와 합성한 허위 영상물(딥페이크)을 신상 정보와 함께 커뮤니티에 올린 것.

사례 2

B 군은 시키지도 않은 다량의 음식을 집으로 배달받았다. B 군을 괴롭히는 가해자 무리가 배달 서비스 앱을 통해 '대면 결제'로 주문한 것이다. B 군은 10만 원에 가까운 금액을 결제할 수밖에 없었다.

사례 3

C 양은 본인의 명품 신발과 가방을 중고 물품 거래 앱에 싼값으로 내놓았다. 가해자의 강권으로 매매 글을 올렸으며, 판매한 뒤 대금을 빼앗겼다. 이후 가해자의 가짜 명품을 비싼 값에 강매당하기도 했다.

사이버 폭력 징후

- 불안한 기색으로 스마트폰 등 전자 기기를 자주 확인하고 민감하게 반응한다.
- SNS 상태 글귀나 사진 분위기가 갑자기 우울하거나 부정적으로 바뀐다.
- SNS, 문자메시지를 본 후 당황하거나 정서적으로 괴로워한다.
- 용돈을 많이 요구하거나 스마트폰 사용 요금이 지나치게 많이 나온다.
- 다른 사람이 스마트폰을 만지거나 보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고, 민감하게 반응한다.
- 갑자기 SNS 계정을 탈퇴하거나 아이디가 없어졌다.

사이버 폭력 도움 요청

- 푸른코끼리 앱(iOS, Android) 상담
- 푸른코끼리 웹 게시판 상담
www.bepuco.or.kr
- 전국 사이버 학교 폭력 상담 전화
1588-9128(구원의팔)
- 카카오톡 상담 '푸른코끼리' 플러스친구



사이버 폭력, 조기 발견이 문제 해결의 시작

학교 폭력으로 힘들어하는 학생들의 고통을 줄이고,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른들의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담임교사, 학교 폭력 책임 교사, 학교전담경찰관(SPO), 부모(보호자) 등 주변 어른들은 사이버 폭력 징후를 초기에 감지해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사이버 폭력 피해자라면 이렇게 대처하자!

사이버 공간에서 불편한 상황이 만들어진다면 "하지 마"처럼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힌다. 원치 않는 메일이나 쪽지 및 메신저 등에 답변하지 않고, 감정적인 보복 대응도 하지 않는다. 보복 대응을 하는 순간 피해자에서 가해자로 바뀌기 때문이다. 피해 상황을 증명하기 위해 불편한 대화나 사진 등은 캡처해 증거를 남기도록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변 어른(부모, 보호자, 교사)과 전문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다. 피해 상황에 따른 적절한 대처법을 함께 고민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폭력은 가해자의 잘못이지 피해자의 잘못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자. 어떤 경우에도 스스로를 탓하지 않아야 한다. 🍷

5월의 푸른빛을 품은 너희를 위하여

이 세상 모든 어른도 한때
어린이였다. 부모부터 지역사회
어른들까지 많은 사랑의 돌봄과
사랑이 있었기에 어른으로 자랄
수 있었다. 사랑의열매는 그 시절
어른들처럼 우리 아이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전국 나눔
협력 기관과 함께 다양한 지원
사업을 진행 중이다.

글 이선희 사진각나눔기관
일러스트 미세스슨그림



저소득가정아동의 회복탄력성 향상을 위한 자전거멘토링지원 사업 따르릉과 함께 마음근육 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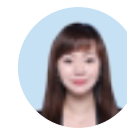


1 자전거와 안전 장비를 지원받은 어린이 2 멘토들과 아동들이 함께 한 자전거 라이딩 활동 3 회복 탄력성 향상 교육에 참여 중인 어린이들



▶ 아동·청소년 복지 분야에서는 코로나19 사태로 청소년의 회복 탄력성 향상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이에 범안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주)대연의 후원과 사랑의열매의 지원으로 지난해 저소득 가정의 아동이 자전거를 타며 몸과 마음의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단순히 자전거를 지원하고 타는 법을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회복 탄력성 향상 교육과 함께 멘토와 일대일 자전거 교육 및 정서 지원 활동을 함께 했다. 멘토들의 정서적 지지를 기반으로 아동들은 다양한 문제 상황에 직면했을 때 스스로를 통제하고, 에너지를 긍정적 방향으로 발산하는 방법을 배웠다.

MINI INTERVIEW



범안종합사회복지관 박해리 팀장

Q 사업을 진행하면서 중점을 둔 부분은 무엇이었나요? 외부에서 자전거를 타기 때문에 활동이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경 썼습니다. 안전 장비 착용, 안전 수칙, 자전거 관리법 등을 반복적으로 교육해 사고 없이 자전거 멘토링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Q (주)대연과 사랑의열매 지원은 어떤 의미인가요? 우리 마을 아이들의 회복 탄력성 향상을 위한 첫 번째 돌계단을 쌓아 올린 마중물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동·청소년의 공감력 향상 및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건강한 한끼 지원 사업 티앤씨와 밥먹차



재단법인 티앤씨재단은 아동·청소년 시설(지역아동센터, 보육원 등)에 푸드트럭을 보내 현장에서 간식과 식사를 지원하는 복지사업 '밥먹차'를 운영하고 있다. 밥먹차는 지난 1년 동안 아동·청소년 시설에 248회 방문해 11,855회 식사 및 간식을 제공했다. 밥먹차는 돈가스, 초밥, 소떡소떡 등 어린이들이 좋아하지만 자주 접하기 어려운 식사와 간식 구성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또한 단순히 식사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즉석에서 다양한 게임을 통해 아이들의 공감 능력을 키워주고, 주기적으로 동일한 시설을 방문해 유대감을 형성하는 게 특징이다. 또한 밥먹차는 식재료를 동네 소상공인들로부터 구매해 지역 상권에도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다. 지난해부터는 우리금융그룹의 후원과 사랑의열매의 지원이 더해져 보다 많은 곳에 밥먹차가 찾아갈 수 있도록 큰 힘이 되어주고 있다.

1 간식 먹는 재미를 더해주는 주사위 게임 2 소상공인이 직접 조리한 음식 3 아이들이 좋아하는 간식으로 구성된 푸드 트럭 밥먹차



“오늘 점심은 세상에서 제일 맛있었어요.”

“오늘 푸드 트럭 온다고 해서
어제부터 기다렸어요.”

“게임을 하며 크게
웃고, 먹고 싶은
간식을 마음껏
먹을 수 있어서
좋았어요. 오늘이
제 생일이었으면
좋겠어요.”



MINI INTERVIEW



재단법인 티앤씨재단 박윤서 PL

Q 어떻게 푸드트럭을 보낼 생각을 했나요? 티앤씨재단은 설립 이래로 결식 우려 아동에게 도시락을 지원하는 복지사업을 지속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 연예인 팬들이 푸드트럭을 보내 자신이 좋아하는 스타를 후원하는 것에 영감을 받아, 아이들의 든든한 후원자이자 팬이 되어주자고 생각해 밥먹차를 개발했습니다.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는 간식을 마음껏 따뜻하게 먹을 수 있도록 현장에서 조리가 가능한 형태로 제작했습니다.

Q 현장에서 만난 아이들 반응이 궁금합니다. 아이들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평소에 소떡소떡, 핫도그 같은 간식을 먹을 기회가 많이 없어서 재방문 날짜만 손꼽아 기다린다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밥먹차가 오는 날이면 동네 친구들이 모두 모여 웃고 떠들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모습을 보면 뿌듯함이 밀려옵니다. 평소에 간식을 20% 정도 넉넉히 준비해 가는데, 하나도 남지 않는 날이면 정말 행복합니다.

Q 특별히 중점을 두는 부분이 있다면요? 가장 중점을 두는 부분은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아이들 시선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좋아하는 음식과 건강식을 적절히 조합해 메뉴를 구성하고,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도록 보온박스를 사용해 식사를 운반합니다. 위생관리에도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눈 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 포커스 온(Focus on)



▶ 아동 및 청소년 시기에 찾아오는 시력 저하는 인생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학업 수행 능력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데, 집중력 저하로 인한 학습 의욕 상실, 인지·정서·사회성 발달 저하 등이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미성년 시기 눈 질환을 조기 발견해 적시에 치료하며 실명을 예방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에 (재)한국실명예방재단은 캐논코리아(주) 후원과 사랑의열매 지원으로 2013년부터 현재까지 10년간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눈 질환으로 수술이 필요한 저소득층 아동 및 청소년에게 개안수술비를 지원한다. 10월 둘째 주 목요일 세계 눈의 날에는 유아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체험식 눈 건강 교육을 실시해 유아기부터 소중한 눈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1 세계 눈의 날을 맞아 어린이들에게 진행한 눈 건강 교육 2 눈을 건강하게 관리하는 법을 쉽고 재밌게 알려주는 게 교육 특징이다. 3 체험식 눈 건강 교육으로 어린이들의 이해도가 90%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저는 한○○의 할머니입니다. 건강검진에서 손녀의 눈이 안 좋다고 해 치료를 받으러 다녔는데, 오히려 눈이 점점 안 좋아진다고 해서 걱정이 많았습니다. 이런 좋은 기회로 손녀의 눈 수술을 할 수 있어 정말 기뻐했습니다. 많은 도움과 격려를 받은 덕분에 수술이 잘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린 손녀를 건강하고 착하게 잘 키우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고,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 한○○ 양의 할머니가 보낸 편지 중 일부 발췌



▶ 열한 살 한○○ 양은 할머니와 단둘이 생활하는 조손 가정 아동입니다. 아이는 간헐성 외사시로 수술을 해야 하지만, 비싼 수술비로 엄두조차 내지 못하던 중 포커스 온 사업으로 개안수술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한○○ 양의 할머니를 비롯해 수술비를 지원받은 아동 및 가족들이 감사 편지를 보내오곤 하는데, 그때마다 다이 사업을 전개한 지난 10년이 얼마나 의미 깊은 과정이었는지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 한국실명예방재단 박영자 본부장

MINI INTERVIEW



한국실명예방재단 박영자 본부장

- Q 10년간 사업 성과를 말씀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소득층 아동 및 청소년 300여명(약 500만)에게 사시, 선천성 백내장, 안검내반증 등 눈 수술비를 지원했습니다. 그 결과 아이들의 시각장애를 예방하고 학습의 집중도를 향상시켜 밝고 명랑한 생활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 Q 캐논코리아와 사랑의열매 지원은 어떤 의미인가요? 만 10세 미만의 저소득층 어린이 눈 수술비는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사시 수술도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본인 부담금이 적습니다. 그러나 만 10세 이상의 사시 수술은 비급여로 수술비 400만~500만 원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저소득 가정에서는 수술비를 감당하기 힘들어 수술을 포기하는 경우도 많고요. 이러한 가정에 눈 수술비를 지원함으로써 의료비 부담 경감 및 실명 예방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 Q 개안수술이 아동·청소년에게 어떤 의미인가요? 시력 향상은 물론 자존감을 높여준다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사시의 경우는 친구들에게 놀림과 괴롭힘을 당하는 경우가 많은데, 수술 후 이런 것이 없어져서 좋다고 이야기하는 아동도 있었습니다. 개안수술은 아동 및 청소년이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부분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

친환경 생활 실천을 위한 지구살림학교
2년 차 접어든 인천 예꿈마을지역아동센터



'지구를 살리는 텃밭
휴놀이교실'에 참여한
예꿈마을 아이들과
선생님

“환경이 가르쳐주는 모든 것 배워요!”

텃밭을 가꾸고, 자전거를 수리하고, 지역 곳곳의 생태 환경을 탐색한다. 예꿈마을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은 봄·여름·가을·겨울 사계절 내내 건강하게 바쁘다. 글강은진 사진감감

지구살림학교를 아시나요?

예꿈마을지역아동센터 텃밭을 찾아가는 길, 꼬불꼬불 울퉁불퉁 좁은 흙길을 운전하기란 여간 어려운 게 아니었다. 하지만 너른 들판에서 예꿈마을 아이들이 있는 곳을 찾는 건 무척 쉬웠다. 왁자지껄 하하 호호 신나는 소리가 멀리까지 들려왔기 때문이다. 아이들은 도시농업관리사 선생님의 지도 아래 밭을 갈고 씨 뿌릴 준비를 하고 있었다. 밭에는 무엇을 심는 거냐고 물으니 아이들이 저마다 손에 들고 있는 씨앗들을 치켜들며 “강낭콩요!”, “상추요!”, “가지요!”, “고추요!” 끝도 없이 대답한다. 쟁기를 들고 밭을 가는 아이, 모종을 옮기는 아이, 잡초를 뽑아 한쪽으로 옮기는 아이, 물뿌리개에 빗물을 받아서 오는 아이, 그사이사이 몸싸움을 하며 노는 아이, 휴 놀이를 하는 아이 등등 텃밭의 아이들은 모두 즐겁고 바빠 보였다. 이곳은 인천 남동구의 예꿈마을지역아동센터(이하 예꿈마을)의 '지구를 살리는 텃밭 휴놀이교실' 현장이다. 예꿈마을은 2022년부터 사랑의열매 지원을 받아 '아동·청소년들의 친환경 생활 실천을 위한 지구살림학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예꿈마을이 환경에 관심을 갖게 된 건 센터 아이들이 대부분 앓고 있는 아토피 증상 때문이었다. 센터에서 건강한 음식을 제공한다고 해도 집에서는 저녁과 주말 동안 거의 배달 음식으로 끼니를 때우다 보니 증상은 좀처럼 개선되지 않았다. 또 기후 위기가 코로나19 발생 원인으로 지목된 가운데 아이들의 일상도 음식의 질은 물론 일회용품 쓰레기 발생까지 문제를 가속화시키고 있었다. 그 어느 때보다 환경 교육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

예꿈마을의 지구살림학교는 무엇보다 실천에 초점을 맞췄다. 인식의 변화는 쉽지만, 일상의 변화를 가져오는 실천은 어렵기

때문이다. 지구살림학교 첫해인 2022년에는 지구를 살리는 재생학교, 도시농부학교, 마을생태학교를 운영하며 몸과 손을 움직여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작은 실천들을 익혔다. 기본 도구들을 이용해 재생에너지를 만들어본다든지, 봄여름 작물들을 재배하며 기술을 습득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말이다. 그리고 2년 차인 올해는 실천 방법을 크게 확대해 텃밭을 넘어 마을 전체를 생태 학습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프로그램은 크게 ●지구를 살리는 텃밭 휴놀이교실 ●지구를 살리는 수리교실 ●지구를 살리는 마을생태학교 ●지구를 살리는 퍼레이드로 구성한다. 휴놀이교실은 초등 저학년들을 중심으로 1월부터 11월까지 절기에 따른 농사를 경험하고, 절기마다 할 수 있는 텃밭놀이를 함께 진행한다. 특히 아이들에게 활동을 강요하기보다 기본 작물 재배를 제외하면 놀이에 초점을 맞춰 재미있게 즐기도록 배려한다. 고학년은 수리교실에 보다 집중한다. 자전거 수리부터 형광등 갈기, 번기 줄 교체하기 등 집수리까지 일상생활에서 직접 할 수 있는 간단한 각종 수리를 직접 배우고 익힌다. 생태학교의 경우, 마을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곤충이나 식물들을 찾아보는 생태 활동이다. 이 같은 활동들은 '지구를 살리는 퍼레이드

예꿈마을 아이들은 텃밭에서 다양한 작물을 재배한다.



텃밭 경험을 통해
아이들은 음식의
소중함을 물론,
다양한 동식물과
익숙해지며
자연스럽게 환경에
대해 생각한다.



활동'을 통해 정리 및 홍보한다. 모든 과정에는
분야별 전문 강사들이 투입된다.

자립심부터 이타심까지

환경 교육은 그저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법과
분리수거를 제대로 하는 법 등을 알려주거나,
재활용 가능한 것을 알아보고 유기농 채소
재배법을 가르치는 인식 제고 차원의 교육에
그치지 않는다. 아이들은 살림학교를 통해
정말 많은 것을 배우고 있다. 각종 채소를 직접

길러보면서 하나의 채소가 밥상에 오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 단계를 거치는지
알게 된다. 이는 음식의 소중함을 깨닫고
편식까지 고치는 계기가 된다. 풍년이면 풍년인
대로 흉년이면 흉년인 대로 아이들은 배운다.
간단한 수리법을 익힌 아이들은 자립심을
키움과 동시에 지역사회 어르신들의 집을 찾아
형광등을 교체하는 봉사 활동을 겸해 남을
돕는 기쁨도 느낀다. 그뿐 아니라 텃밭에서 볼
수 있는 개미, 메뚜기, 개구리 등 다양한 곤충과
공원이나 하천 등 마을 곳곳에서 함께 살아가는
식물과 소동물과 만나는 과정에서 환경을
보호하는 일이 왜 중요한지 저절로 깨닫는다.
내가 살아가는 지구는 나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생명체가 함께 살아가고 있음을 알게
되기 때문이다.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도
버리게 된다. 이는 가정에서도 직접 기른 작물로
요리하거나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등 생활
실천으로 이어진다. 나를 살리고, 우리를 살리고,
지구를 살리는 작은 실천을 가르치고 있는
예꿈마을지역아동센터의 지구살림학교다.

텃밭은 사계절 내내
아이들에게 훌륭한
교실이 된다. 봄을
맞아 직접 씨를
뿌리는 예꿈마을
아이들



“환경 교육, 더불어살아가는 법알려줘”

예꿈마을 김지웅 생활복지사

사랑의열매 지구살림학교 사업 신청 배경이 궁금하다.

지역아동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도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화한다. 이전에는 문화 교육이 주를
이루었다면, 요즘은 학교부터 생태나 환경 및 기후
위기 관련 수업이나 활동이 많다. 코로나19까지
겪치면서 그 어느 때보다 지구환경에 관심이 커진
만큼 우리도 발맞추어 가고자 했다.

사랑의열매 지원 전후, 가장 달라진 점은 무엇인가?

사실 우리 아동센터는 2020년부터 지역 단체들과
연계해 자체적으로 아이들과 텃밭을 가꾸고 있었다.
그러나 아이들과 함께 가서 상추나 심는 식으로
내용이 체계적이지 못했다. 사랑의열매 지원을 받은
후 수업 내용도 확장되고, 전문 강사님도 분야별로
모시게 되어 알찬 환경 교육 커리큘럼을 갖출 수 있게
되었다.

환경 교육은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나?

문화 예술 교육은 아이들 자존감 향상에 많은
변화를 주었다. 그러나 생태나 기후 등 환경 교육은
자존감, 즉 '나'를 넘어 타인은 물론 자연 안에서 다른
생명들의 존재를 알게 되고,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것임을 깨닫게 한다. 자존감만큼이나 중요한 교육적
가치다.



환경 관련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환경 관련 교육은 초창기라 사랑의열매처럼 큰
기관의 지원이 없으면 새로운 시도를 하기 어렵고,
체계적인 커리큘럼도 갖추기 힘들다. 또 텃밭만
보더라도 1년 단위의 중장기 프로젝트라 여러 해
진행해 교육적 노하우를 쌓는 시간도 필요하다.
하루아침에 환경문제가 해결되지 않듯 환경 교육
역시 단기간에 완성되지 않는 만큼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좋겠다. 🍀

세종 16호 아너 산장가든
정해석 대표



“산장가든에 대한 사랑, 나눔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산장가든은 세종시에서 첫손에 꼽는 석갈비 맛집이다. 미식가인 남편 정해석 대표와 손맛 좋은 아내 박점숙 씨의 노력으로 만든 결과물이다. 작은 오두막에서 시작한 산장가든은 30년 가까운 세월을 이어오며 세종시의 명물로 자리 잡았다. 글강보라 사진장은주

검색창에 '세종시 맛집'을 입력하면 첫 페이지 상단에 산장가든이 나온다. 세종시 유일의 시립 고북저수지 자연생태공원과 인접해 남녀노소 모두에게 사랑받는 관광 코스이기도 하다. “이미 검증된 맛집”, “돼지갈비 끝판왕”, “20년 넘은 단골”이라는 리뷰가 쏟아지는 맛집으로 유명하지만,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 있다. 이곳이 매월 정기 기부를 이어가는 세종 41호 착한가게이며, 1억 원 이상의 고액 기부를 실천한 세종 16호 아너의 나눔 명가라는 것이다.

세종시의 상생 명물, 산장가든 오일장

주말 점심에 산장가든을 방문하면 문전성시(門前成市)라는 말을 직접 체험할 수 있다. 오픈 전부터 줄 서는 사람들과 주차 대기 중인 차량으로 인근에서 가장 북적거리기 때문에

다. 재미있는 사실은 그만큼 사람들이 몰리는 덕분에 주말마다 산장가든만의 주말 오일장(?)이 열린다는 것. 산장가든으로 진입하는 길목에서 연서면 주민들이 직접 기른 채소와 잡곡을 살 수도 있고, 여름에는 복숭아, 가을에는 배 등을 구입할 수도 있다. 사람들이 몰리면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직거래 장터인 셈이다. 맛있는 갈비를 먹고 후식으로 세종시 특산품으로 꼽히는 복숭아와 배를 가장 신선하고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 직거래 장터의 가장 큰손은 산장가든 주인들이다. 정해석·박점숙 부부는 산장가든에서 사용하는 식자재 대부분을 인근 주민들에게서 구입하며 상생 정신을 실천하고 있다.

“산장가든은 고북저수지 상류 골짜기에서 작은 식당으로 시작했죠. 세종시로 승격되기 이전에 연기군민들에게 사랑받았기 때문에 지



산장기든의 성공 비결은 진심과 정성이다. 진심 어린 서비스와 정성 가득한 음식이 있었기에 큰 사랑을 받을 수 있었다.

금의 자리까지 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지역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며 주민들의 은혜에 보답하고 싶습니다.”

어려운 일에 발 벗고 나서는 부부가 있어서 산장기든은 지역 주민들에게 식당 이상의 의미가 있다. 함께 살아가는 일에 앞장섰기에 지역 주민들도 인정하는 ‘착한가게’로 거듭날 수 있었다.

맛으로 맺은 인연, 나눔으로 보답하다

1995년에 문을 연 산장기든은 연기군민들에게는 추억의 외식 장소로 기억된다. 어릴 때 부모의 손을 잡고 갈비를 뜯던 아이들이 어른이 되어 회식 장소로 이용하기도 하고, 부모가 되어 다시 본인 아이들을 데리고 오며 대를 이어가는 지역 명소로 자리를 잡은 것이다. 그렇기에 손님들에 대한 고마움은 이루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다. 정해석 대표가 “혼자 이룬 성공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도 수많은 인연이 지금의 산장기든을 만들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모두가 귀한 인연입니다. 많은 식당 가운데 저희 집을 찾아주신 손님들에게 늘 감사하고, 연기군에서 인증한 맛집으로 지정되면서 이름을 널리 알릴 수 있었죠.”

우직한 남편과 손 큰 아내는 고마운 인연에 보답하기 위해 세종시장에인단체연합회, 영명보육원, 늘푸른집(장애인 시설) 등을 후원하며 소외 계층을 위한 나눔에도 적극 나서기 시작했다. 그것이 산장기든에 보여준 손님들 사랑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많은 분이 조건 없이 산장기든을 찾아주신 것처럼 저희도 인연이 닿는 대로 어려운 분을 힘껏 돕고 싶습니다.”

세종 착한가게 41호에서 세종 아너 16호까지

개인적인 나눔을 이어가던 정해석 대표는 사랑의열매를 만나며 새로운 나눔의 길로 들어섰다. 특히 세종 1호 아너 최윤묵 서창산업 대표와의 만남은 그의 나눔 인생에 터닝 포인트가 되었다. 최윤묵 아너는 경주 최부잣집 후손으로 ‘사방 100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도록 하라’는 집안의 유훈을 실천하며 세종시 아너들의 나눔 멘토가 되어주는 인물이다. 최근 정해석 대표가 세종충남대병원에 5,000만 원을 기부한 것도 최윤묵 아너의 권유로 이루어진 것이다.

“집안 형편이 어려운 소아 환자의 치료비로 사용할 예정이고요, 이번 기부로 도움이 필요한 다양한 분야와 계층이 있다는 것을 새롭게 알게 되었죠. 최윤묵 아너님 곁에서 많은 것을 배우며 세종시 소외 계층을 위한 일을 찾아볼 생각입니다.”

정해석 대표의 나눔 인연 중에는 아동복지시설인 영명보육원도 있다. 만 18세 이후에는 보육 시설을 나와야 하는 세종시 영명보육원의 보호종료아동을 품은 것이다. 준비 없이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아이들을 응원하기 위해 직원으로 고용하고, 숙소도 지원하며 자립을 도왔다. 그렇게 가족이 된 아이들은 어엿한 어른으로 성장하며 산장기든을 지탱하는 큰 축으로 자리하고 있다. 정해석 대표는 이후 완전한 자립을 위한 기술 전수와 CEO 교육과정도 단계별로 지원 중이다.

더불어 함께 사는 행복한 세상

정해석 대표는 아너 가입 당시 “정성을 다해 나눔을 실천하고자 합니다”라는 메시지를 남겼다. 이는 산장기든 경영에서 비롯한 철학이다. “산장기든 맛의 비결은 ‘정성’이에요. 내 자식들이 먹는다는 생각으로 정성을 담으면 식재료와 위생 관리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죠.” 좋은 재료에서 나오는 자신감으로 깨끗하고 우직한 맛을 내는 것이다. 여기에 양념이 스며드는 숙성의 시간도 필요하다. 정해석 대표는 나눔에도 숙성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나눔은 좋은 일이지만, 설득이나 강요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느끼고 실천해야 진정으로 가치를 발하게 되는 것이죠. 좋은 화두를 던졌을 때 마음에 와닿은 사람이 기쁘게 실천하기를 바랍니다.” 음식의 숙성처럼 나눔에도 익어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것이다. 이렇듯 정직과 정성으로 쌓은 부모의 시간은 자식들의 인생 지침으로 작용했다. 굶는 것을 걱정하며 오두막 갈빗집 테이블에서 공부하던 남매는 남부

럽지 않게 성장했다. 첫째 딸은 식품영양학을 전공하는 교수로, 둘째인 아들은 치과 의사로 자신만의 길을 개척했다. 개원을 앞둔 아들은 “세종 아너 가입이 목표”라고 말할 정도로 아버지의 든든한 나눔 지지자이기도 하다. 정해석 대표는 산장기든의 음식으로 자식을 키우고, 보육원 아이들을 품었다. 앞으로 더 많은 인연을 위해 오늘도 진심과 정성으로 산장기든의 문을 열 것이다. 🍀

산장기든 직거래 장터가 열리는 길목에서 환하게 웃는 정해석 대표의 모습



'정밥TV' 10만 구독자 기념, 나눔리더 가입한 방송인 배동성·요리 연구가 전진주 부부

“오랜 나눔의 꿈, 이제 시작합니다!”

나눔에 대한 오랜 꿈, 이제 첫발을 떼었을 뿐이라고 말한다. 유튜브 채널 10만 구독자 달성 기념
기부를 실천한 방송인 배동성과 요리 연구가 전진주 부부다. 글강은진 사진이승재

부부의 첫 동반 기부, 보다 뜻깊어

경기도 파주의 한 촬영 현장에서 방송인 배동성과 요리 연구가 전진주 부부를 만났다. 부부는 지난해 12월, 두 사람이 함께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정밥TV' 10만 구독자 달성을 기념하며 1,000만 원을 사랑의열매에 기부하고 나눔리더에 이름을 올렸다. 성금은 10만 구독자 달성 기념 '감사 콘서트' 수익금에 부부가 기부금을 더해 마련했다.

“결혼 전부터 아내 소사이어티 회원이 되는 게 제 버킷 리스트 중 하나일 정도로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따로 저축도 했는데, 좀 모이면 꼭 일이 생겨 실행에 옮기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제 마음을 잘 아는 남편이 천 리 길도 한 걸음부터라며 응원해줘 드디어 시작하게 되었어요!”

나눔은 아내 전진주 씨의 오랜 꿈이었다. 월남전 참전 용사였던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홀로 고생하시는 어머니를 보며 누구보다 어려운 청년들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 있었다. 또 학창 시절 우연한 기회에 보육원 봉사 활동을 하면서 어려운 이웃에 대한 생각은 더욱 깊어졌다. 그러면서도 이제야 실천한다며 미안한 듯 웃었다. 옆에서 아내의 말을 듣던 남편 배동성 씨는 “그동안 크고 작은 봉사와 기부를 많이 해왔지만 아내와 함께 하는 첫 기부라서 더욱 뜻깊다”며, “앞으로도 아내와 계속 나눔을 이어가고 싶다”고 말했다.

50만 구독자 기념은 사랑의열매와!

부부의 첫 동반 기부를 가능하게 한 '정밥TV'는 요리 연구가 전진주 씨의 맛깔스러운 레시피를 중심으로 유용한 생활 정보를 공유하며 배동성 씨와 함께 유쾌하고 진솔하게 팬들과 소통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2020년 5월 채널을 열며 1명으로 시작한 구독자는 현재 13만 명에 육박하고 있다. 매일 매일 1명씩 구독자가 늘는 게 신기했다던 부부는 구독자 1,000명이 되었을 때 너무 기뻐다며 당시가 생각나는 듯 두 손을 맞잡고 활짝 웃었다.

“예전부터 유튜브를 하고 싶었지만... 이제 시작해서 될까 두렵더라고요. 진짜 방송처럼 스튜디오도 필요할 것 같고, 그런데 남편이 스튜디오에서 촬영하는 밥을 몇 명이나 먹느냐며, 그냥 우리가 먹는 진짜 집밥이 맞다면 자신이 후딱 찍겠다고 하더라고요.(웃음)”

“나눔은 나눌수록 배가되는 기쁨이에요!” -배동성



“사랑이 있어야 나눌 수 있으니, 나눔은 또 하나의 깊은 사랑 아닐까요?” -전진주

전진주 씨는 “남편은 벌써 50만 구독자 달성 기념 콘서트를 꿈꾼다”며 웃었다. 거기엔 사랑의열매도 함께하면 어떨까.

“와, 정말 좋은 생각이네요! 수익금도 기부하고 말이지. 사랑의열매 이웃들이 구독을 눌러주시면 금방 될 것 같은데요!(웃음)”

배동성 씨는 떠올려보는 것만으로도 기쁜 것 같았다. 아내 전진주 씨가 사랑의열매 인형 탈도 쓰면 좋겠다고 아이디어를 보낸다. 이제 부부는 나눔의 꿈을 함께 꾸는 동반자다. 구독과 좋아요로 부부를 응원하며 다음 콘서트를 기다려본다. 🍀

대전 사랑의열매 제12대 유재욱 신임 회장

“나와 가족, 이웃이 함께하는 나눔사회를 만들겠습니다”

넉넉지 않은 형편에 7남매를 키우면서도 평생 나누는 삶을 산 어머니의 영향이 컸다. 일찍부터 나눔과 베품의 의미를 배운 그는 다양한 활동을 하며 지역사회를 살뜰히 돌보고 있다. 몇 해 전 한 차례 거절에도 다시 돌아온 막중한 임무를 받아들이며 이제는 대전 사랑의열매 회장으로 새로운 나눔 길에 나선 오성철강(주) 유재욱 회장 이야기다.

글 이선희 사진 사랑의열매



- 오성철강(주)와 두성철강산업(주) 대표이사 회장으로 50년째 지역사회 경제 발전을 이끄는 굴지의 경영인이다. 현재 대전상공회의소 수석부회장, 대전신용보증재단 상임이사, (재)대전경제통상진흥원 상임이사를 맡고 있다. 2015년 아너 소사이어티 가입, 청소년 장학금과 대전시 봉사연합회 성금을 매년 기탁하며 다양한 사회 활동을 전개 중이다.

Q 대전 사랑의열매 제12대 회장에 취임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A 감사합니다. 사실 11대 회장으로 제안받았으나 저보다 훌륭한 후배들이 많기에 고사했습니다.

이번에도 고민이 많았지만,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마음으로 의미 있게 보내고자 회장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Q 어머니께 나눔과 베품의 정신을 대물림받았다고 들었습니다.

A 겨울이면 김장을 해서 꼭 이웃에 나누어주고, 추위에 떠는 아이들을 위해 이불을 만드시던 어머니의 모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때때로 '그 어렵던 시절에도 어머니는 어떻게 나눔까지 할 수 있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에 사회 환원에 대한 저의 의지를 공고히 할 수 있었습니다.

Q 임기내 꼭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다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A 나눔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대전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나와 가족부터 나눔을 실천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미 아너로 가입한 저와 첫째 아들은 물론, 아내와 둘째 아들도 아너 회원이 되어 사회에 환원하는 삶을 이어가고

싶습니다. 저의 실천으로 인해 다른 아너 회원분들에게도 사랑의 DNA가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Q 앞으로 대전 사랑의열매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갈 계획인가요?

A 대전은 전통적으로 개인 모금 비율이 높습니다. 지역적 특색을 반영해 시민들이 다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공동체 나눔문화가 확산할 수 있도록 대전 사랑의열매를 이끌고 싶습니다. 한화이글스 프로야구단, 대전하나시티즌 프로축구단 등 스포츠 구단과 연계해 나눔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협의하려 합니다. ♡

세상을 바꾸는 작은 실천

사랑의열매가 새로운 사회문제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긍정적 변화를 만들어가고자 사랑의열매 홈페이지를 통해 크라우드펀딩을 진행 중이다. 이번 달에는 청소년의 공감을 끌어내 자연스러운 인식 개선을 유도하는 학교 폭력 예방 뮤지컬을 지원하고자 한다. 글 이선희 사진 사랑의열매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한 청소년뮤지컬

학교 폭력의 비극을 다룬 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의 주인공 '동은'이는 과연 드라마에만 존재할까요? 대학생 34%가 학교 폭력을 경험했다고 답할 정도로 현실에 많은 동은이가 지옥 같은 하루 하루 보내고 있습니다. 형식적이고 따분한 학교 폭력 예방 교육으로 현실을 바꾸기엔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극단 '날은자동차'는 실제 학생이자 배우인 청소년들이 대본과 연출에 참여해 만드는 학교 폭력 예방 뮤지컬 <랜덤>을 제작했습니다. 청소년들이 뮤지컬을 보며 공감하고, 학교 폭력을 막을 수 있는 자연스러운 인식 변화를 이끌어내고자 합니다. ♡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해 모두의 응원이 필요합니다

모금 기간
3월 28일~7월 28일

목표 금액
300만 원

모금 사용
대관비, 조명비·음향비
(해당 비용으로 문화 소외 계층 청소년의 무료 관람 진행)



OR코드를 찍으면 사랑의열매 <크라우드펀딩> 홈페이지에 바로 접속

모금 참여 사랑의열매 홈페이지(www.chest.or.kr) → 캠페인 → 크라우드펀딩

충청남도 공공 기관 1호
나눔명문기업 충청남도개발공사

나눔 경영으로 도민과 상생하는 따뜻한 충남의 미래

충청남도개발공사는 충남 도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2007년 설립한 지역개발 전문 공기업이다. 도내 시군 균형 발전과 도시 개발, 산업 단지 조성, 농산어촌 개발 등 주요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며 사회적 약자를 위한 '희망나눔' 사회 공헌 사업으로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 있다. 글강보라 사진충청남도개발공사, 사랑의열매



1 아산 배방에 위치한
충남형 행복주택 조감도
2 호암 사랑의 집 고치기
봉사에 나선 임직원들



충청남도개발공사(이하 충남개발공사)의 '희망나눔' 사회 공헌 사업은 도민의 눈높이에 맞춰 진행한다. 수요자 중심의 사회 공헌이기에 지역 경제 활성화와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도 한 축을 담당하는 것이다. 충청남도 공공 기관 1호로 나눔명문기업 실비 회원(4억 4,100만 원 기부)으로 가입해 현재 골드 회원을 달성하는 등 활발한 나눔 사업을 펼치고 있다. '희망2023나눔캠페인' 출범식에 1억 300여 만 원의 시군 이웃사랑 성금을 기탁한 것도 도민의 행복을 위한 자연스러운 선택이었다. 지난 4월, 충남 5개 시군에서 대규모로 발생한 산불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3억 원의 성금을 쾌척하며 절망에 빠진 이재민에게 위로의 손길을 건네기도 했다. 충남개발공사 임직원으로 구성된 '두드림(DO DREAM) 봉사단' 역시 지속 가능한 동반 성장을 목표로 한다. 이들은 사랑, 환경보호, 협력, 나눔을 4대 핵심 전략으로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도민과 상생하는 충남의 내일은 충남개발공사의 눈높이 나눔에서 시작된다.

나눔경영으로 실천하는 지역 사랑

지역 주민의 생활 파트너인 충남개발공사에 주거 안정은 중요한 화두다. 주요 사업으로 꼽히는 '충남형 행복주택'은 주거 복지를 실현하는 사회 공헌 성격도 띠고 있다. 충남형 행복주택은 충청남도과 충남개발공사가 저출생 문제 해결과 신혼부부 주거 안정을 위해 마련한 공공 임대주택으로, 기존 임대주택보다 저렴하며 더 넓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제공한다. 예산주교 충남형 행복주택의 경우 입주 후 자녀 1명을 출산하면 임대료가 절반으로 줄고, 2명을 출산하면 전액 무료로 거주 가능한 파격적 조건이다. 실제로 입주한 신혼부부가 아이를 6~7명 낳는 경사도 맞았다. 충남형 행복주택은 아파트 공급난과 저출생 문제 극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며 사회문제 해결의 묘수로 떠올랐다.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지난해 제4회 대한민국주거복지문화대상에서 최우수상도 수상했다.

또한 개발 사업에서 축적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역민의 주거 환경 개선 활동에도 적극 나섰다. 충남개발공사 임직원은 서천군 한산면 '호암 사랑의 집 고치기' 사업에도 동참했다. 고령 노인이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을 위한 무료 거주 시설이 노후화로 안전에 위협을 받자 지역사회와 함께 14세대의 대대적인 정비 작업을 진행한 것이다. 사랑의열매와 함께하는 '행복가꿈' 사업으로 독거 어르신 가정의 노후화된 도배장판 교체, 싱크대 교체, 전기 시설 점검 및 교체 등의 활동도 펼쳤다. 충남개발공사는 이처럼 주거 불평등을 해소하고 쾌적한 삶의 터전을 보장하며 새로운 충남의 미래를 열고 있다.

환경보호로 맑고 푸른 충남을 가꾸다

충남개발공사의 임직원은 미래 세대를 위한 환경보호 활동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공공 부문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 운동'으로 사무실 내 일회용 종이컵과 페트병의 사용을 제한하고, 민원인 방문이나 회의 시에 다회용 컵을 사용하며 생활 속에서 친환경 활동을 실천 중이다. 재활용하기 어려워 문제가 되는 일회용 우산 비닐 커버 대신 출입구에 친환경 빗물 제거기를 설치해 일회용품 사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 충남도청 남문 광장에서 열린 추석 맞이 충남 큰 장터에서 공사 임직원과 노조 간부가 함께 참여하는 '일회용품 줄이기 캠페인'을 진행하고, 장터를 방문한 고객에게 에코백(1,000여 장)을 무료로 배부하며 도민들의 비닐봉지 사용에도 경종을 울렸다.

충남개발공사 정석완 사장은 '고고챌린지' 릴레이에 참여하며 '일회용품 사용은 줄이고 투명 페트병은 분리배출하고'라는 실천 문구를 남겼다. 고고챌린지는 환경부에서 시작한 SNS 캠페인으로 환경부 조영래 前 장관이 시작한 이래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충남도립대 김용찬 총장의 지명을 받은 정석완 사장은 "생활 속에서 종이컵, 나무젓가락 등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을 철저히 지키겠다"는 다짐을 SNS에 올리며 생활 속 탈(脫)플라스틱 실천 운동에 동참했다.

지역 경제를 선도하는 상생 협력

충남개발공사 정석완 사장은 6대 사장으로 취임하면서 '플라워 버킷 챌린지'로 사회 공헌 활동의 포문을 열었다. 코로나19로 고생하는 의료진을 응원하기 위한 꽃바구니 배달 이벤트이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대면 행사가 취소되며 위기를 겪는 화훼 농가를 지원하는 공익적 성격도 띠고 있다. 공사는 일반 화훼 농가 판로 확대뿐 아니라 도내 장애인 보호 작업장인 '꽃밭'에서 제작한 꽃바구니를 구매해 장애인 자활을 돕고, 의료진에게 응원의 선물을 전달함으로써 일석삼조 효과를 이끌어냈다. 플라워 버킷 챌린지 행사는 홍성의료원 의료진 전달을 시작으로 도내 의료원 네 곳에 각각 100개씩 총 400개 꽃바구니를 전달했다. 충남개발공사의 상생 협력은 명절에도 이어졌다. 취약 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추석맞이 농산물 꾸러미를 기획한 것이다. 과일, 한과, 혼합 잡곡 등 지역 농산물로 구성된 꾸러미는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뿐 아니라 취약 계층 명절맞이에도 요긴하게 사용하며 상생 협력이 돋보이는 활동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 1 정석완 사장은 고고챌린지로 탈(脫)플라스틱 실천을 선언했다.
- 2 비닐봉지 없는 직거래 장터를 위해 도민들에게 무료 에코백을 배포하는 모습



농촌 일손 돕기도 눈길을 끈다. 임직원이 청양군 수정리 농가를 찾아 모판 작업 등에 나선 것이다.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 두기가 강화되면서 일손이 부족한 농가를 위해 이른 아침부터 모판을 만들며 지역 농업인의 근심을 덜어주었다. 고령화로 영농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 외국인 노동자의 입국까지 지연되자 곤경에 처한 농가를 위해 시기적절하게 나서 큰 호응을 얻었다.

나눔으로 행복한 충남도민의 내일

충남개발공사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나눔에도 열심이다. 지난해 열린 '제22회 충청남도 장애인 합동결혼식'에서 후원금으로 마련한 제습기 33대를 각 가정에 전달하며 축하를 전했다. 장애인 합동결혼식은 혼인신고로 결혼식을 대신한 장애인 부부에게 결혼식을 치러주는 행사로,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이 행사를 통해 도내 총 483쌍의 부부가 화촉을 밝혔다. 충남개발공사는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늦은 결혼식을 올린 장애인 부부의 백년해로를 기원하며 매년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추석 명절에는 지역 내 국가유공자 및 보호 가족들의 화성과 헌신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도내 8개 시군 보호 대상 전 가구(320가구)에 지역 특산품과 방역 마스크 등 총 800만 원 상당의 위문품을 전달했다. 호국 보호의 달에도 보호지청에 1,000만 원 상당의 생필품을 전달하며 후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대신 전했다. 지역 내 소외된 이웃에게 온정을 전하는 '사랑의 빵 나눔' 봉사 활동도 빼놓을 수 없다. 정석완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모두가 재료 손질부터 반죽, 빵 만들기 등 과정에 참여하며 나눔의 의미를 더한 활동이었다. 완성한 300여 개의 빵은 관내 저소득 및 돌봄 취약 아동을 위한 지역아동센터에 전달했다. 충남 제1의 공기업으로 나눔문화 확산에 나선 충남개발공사의 사회 공헌 활동은 지역에 온정을 불어넣고 있다. 이런 작은 나눔에서 '힘센충남'이 완성되는 것이다. 나눔수록 더 큰 힘을 발휘하는 충남개발공사의 사회 공헌이 앞으로도 계속되기를 바란다. 🍌

- 3 의료진 응원부터 화훼 농가와 장애인 자활까지 챙긴 플라워 버킷 챌린지
- 4 사랑의 빵 만들기로 마음을 전하는 직원들 모습
- 5 장애인 합동결혼식 후원으로 행복한 출발을 응원하는 모습

모아주신 사랑, 투명하게 전달합니다

사랑의열매는 기부금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매년 배분 명세를 공고한다. 이에 따라 2022년 배분·모금 실적을 공개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사회 구석구석 사랑의 온기를 전한 결과를 소개한다. **클이선희**



아너 소사이어티

3,000호

착한가게

40,000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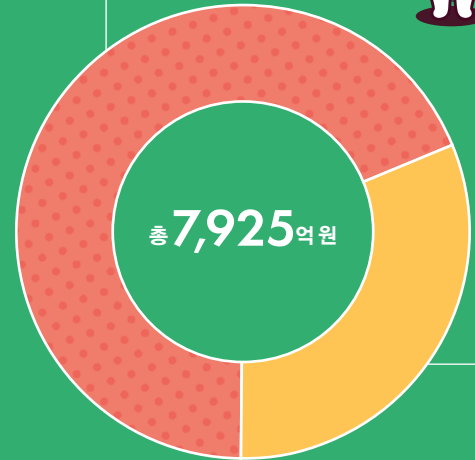
나눔명문기업

300호

이렇게 모았습니다

법인 기부자

6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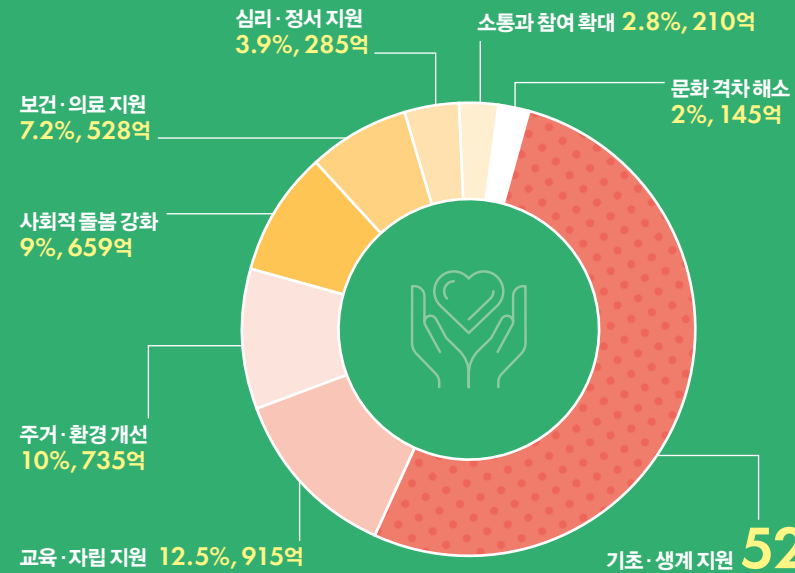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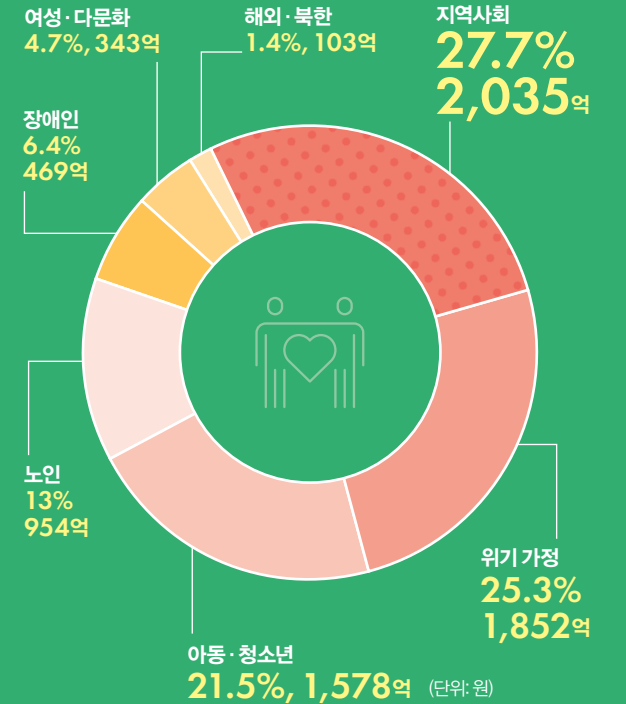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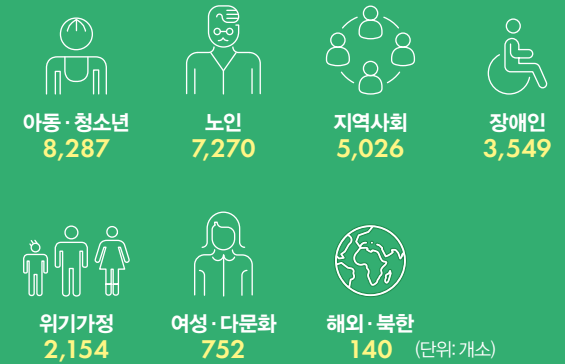


개인 기부자
31.5%

△ 2022년 총모금액은 7,925억 원이다. 기부자 유형 별로 살펴보면 개인 기부자 2,499억 원(31.5%), 법인 기부자 5,426억 원(68.5%)으로 최종 집계됐다. 특히 2022년에는 착한가정, 착한가게, 나눔리더, 아너 소사이어티 등 기부 프로그램에 가입하는 개인 기부자가 꾸준히 증가했다. 이에 따라 착한가게 4만 호, 아너 소사이어티는 3,000호 가입 달성이라는 의미 있는 발자취를 남겼다. 또한 법인 기부 역시 나눔명문기업이 출범 4년 만에 300호를 달성해 기업 사회 공헌의 새 장을 열었다.

이렇게 나눴습니다

▶ 2022년 한 해 동안 사랑의열매는 전국 나눔 협력 기관 2만 7,178개소를 통해 40만 명의 이웃에게 총 7,334억 원을 지원했다. 대상별 지원 금액을 살펴보자면 지역사회, 위기 가정, 아동·청소년, 노인, 장애인, 여성·다문화, 해외·북한 순으로 많았다. 대상별 지원 기관 수로 보면 아동·청소년이 8,287개소로 가장 많았고 노인, 지역사회, 장애인, 위기 가정, 여성·다문화, 해외·북한이 뒤를 이었다.



◀ 8대 배분 분야 중 기초·생계 지원에 가장 많은 지원이 이루어졌다. 지원금 총 7,334억 원 중 52.6%에 달하는 3,857억 원을 전달해 우리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힘썼다. 뒤이어 교육·자립 지원, 주거·환경 개선, 사회적 돌봄 강화, 보건·의료 지원, 심리·정서 지원, 소통과 참여 확대, 문화 격차 해소 순으로 지원금을 배분했다. ▲

다른 그림 찾기에 도전하세요

당신에게 '어린이'는 어떤 의미인가요?

'어린이'는 소파 방정환 선생이 아동을 독립적 존재로 보고 만든 단어다. 하지만 최근 요리 초보를 뜻하는 요리(요리+어린이) 등 어떤 일을 이제 막 시작해 서툴다는 의미의 신조어로 사용하고 있다. 어감이 귀엽고 재미있다는 반응도 있지만,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멸시와 조롱을 담은 차별 언어로 규정하고 언론 보도에 사용하지 않기를 권장했다. 참고로 방정환 선생은 '어린 사람'이라는 뜻을 담아 어린이라는 단어를 만들었다고 한다. 어린이날이 있는 5월, 어린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되짚어보면 어떨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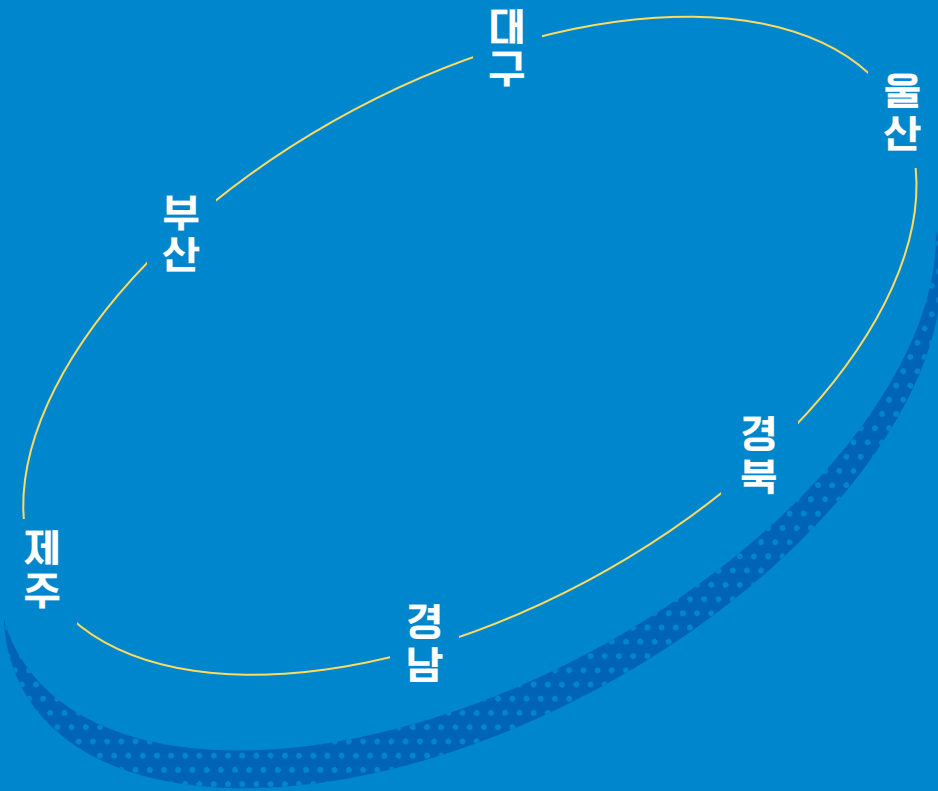


다른 부분은 총 다섯 곳, 모두 찾은 분께 선물을 드립니다

다섯 곳을 모두 표시한 후 사진을 찍어 사랑의열매 메일로 보내주세요. 이름과 연락처도 꼭 적어주세요. 추첨을 통해 세 분께 커피 기프티콘을 보내드립니다.

마감 일자 매월 20일 사랑의열매 이메일 cckpr@chest.or.kr

5월





BNK금융그룹 튀르키예·시리아 지진 피해 복구 성금 기탁 “이재민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길”

BNK금융그룹은 지난 3월 17일 튀르키예와 시리아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재민을 돕기 위해 성금 3억 원을 부산 사랑의열매에 전달했다. 해당 성금은 고객과 임직원, BNK금융그룹이 다 함께 뜻을 모아 마련한 것으로 의미를 더한다.

클이선희 사진 부산 사랑의열매



성금 전달식에 함께한 BNK금융그룹 빈대인 회장(왼쪽)과 부산 사랑의열매 박선욱 사무처장

모두의 따뜻한 마음이 더해져

튀르키예·시리아 지진 피해 복구 성금 전달식은 3월 17일 BNK금융그룹 빈대인 회장과 부산 사랑의열매 박선욱 사무처장이 참석한 가운데 BNK금융그룹 본사에서 진행됐다. 앞서 BNK금융그룹과 부산 사랑의열매는 튀르키예·시리아 지진 이재민을 돕기 위해 ‘BNK금융그룹 고객과 함께하는 튀르키예·시리아 지진 피해 구호 모금 캠페인’을 2월 20일부터 3월 15일까지 24일간 전개했다. 고객과 임직원이 함께 참여해 정성으로 모은 기부금에 BNK금융그룹이 동일 금액을 추가로 기탁하는 매칭 그랜트 방식으로 3억 원을 마련해 특별한 의미를 더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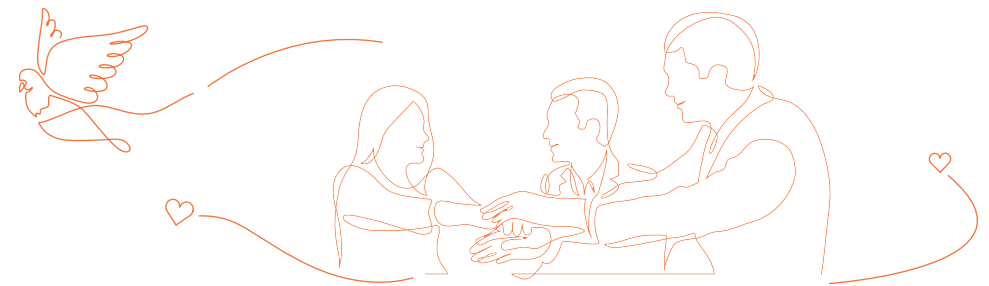
성금 전달식 후 진행된 BNK금융그룹 빈대인 회장의 취임식

이재민 구호 활동에 전액 사용

전달식에 참석한 부산 사랑의열매 박선욱 사무처장은 “지구 반대편에서 힘들어하는 튀르키예·시리아 지진 이재민을 돕기 위해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신 BNK금융그룹 회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캠페인에 참여해주신 고객과 임직원분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부산 사랑의열매에 전달한 성금은 인도적 지원 활동을 활발히 펼쳐온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를 통해 지원했다. 튀르키예·시리아 지진 피해 지역의 임시 보호소를 중심으로 식량 키트 및 텐트, 담요 등 보온용품 지원과 이재민의 생명 및 건강을 보호하는 구호 활동에 전액 사용된다. 한편, 이번 전달식은 BNK금융그룹 빈대인 회장의 취임식에 앞서 진행되어 눈길을 끌었다. 앞으로 BNK금융그룹 ESG 활동을 통한 지역 상생 금융 및 기부 문화 확산을 위해 계속 노력하리라는 빈대인 회장의 의지가 느껴지는 행보다. 향후 BNK금융그룹의 사회 공헌 활동이 어떤 변화를 불러일으킬지 기대가 크다. ♡

“튀르키예·시리아 지역에 대지진이 발생해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재민을 돕기 위해 BNK금융그룹 고객과 임직원, BNK금융그룹이 뜻을 모아 기부금을 전달합니다.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는 튀르키예·시리아 국민에게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BNK금융그룹 빈대인 회장





아내에게 받은 유산을 기부한 남편 손전현 씨의 고귀한 나눔

지난 2월 말 대구 사랑의열매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사별한 아내가 남긴 금을 기부하고 싶은데요”라며 윤을 뎨 손전현 씨의 전화였다.

아내가 준 마지막 선물을 기부한 남편 손전현 씨의 이야기를 전한다. 글 이선희 사진 대구 사랑의열매 출처 매일신문



대구 사랑의열매 강주현 사무처장에게 기부 감사패를 받은 손전현 씨(오른쪽)



故 김현화 씨가 남편에게 남긴 3,800만 원 상당의 10돈짜리 순금 바 13개

남편을 걱정하며 건넌 아내의 사랑

대구 사랑의열매 사무실을 방문한 손전현 씨는 10돈짜리 순금 바 13개를 건넸다. 아내故 김현화 씨가 폐암 말기를 진단받고 남편 손 씨에게 평생 모아온 금을 건네며 “생활이 곤궁할 때 하나씩 팔아서 생계에 보태어 쓰라”는 말을 남겼다. 생활이 넉넉지 않은 남편이 홀로 살아갈 것을 걱정하던 아내의 깊은 사랑이자 배려였다. 하지만 병상에서도 비싼 치료비와 남편 손 씨를 걱정하던 아내 생각에 손 씨는 차마 이금을 쓸 수 없었다. “아내는 치료비를 아끼느라 제대로 치료받지도 못하고 떠났습니다. 그런 아내를 위해 좋은 일을 하고 싶습니다. 소중한 유산이 필요한 곳에 쓰여 아내가 하늘에서 기뻐하길 바랍니다.”

나눔리더에 나란히 이름 올린 부부

그가 가져온 순금은 현금으로 환산하면 3,800여만 원에 이른다. 유산 기부로 손전현·故 김현화 부부는 대구 사랑의열매 나눔리더 98·99호에 나란히 이름을 올렸다. 대구 사랑의열매는 고귀한 나눔을 실천한 것에 감사한 마음으로 지난 3월 3일 손전현·故 김현화 이름으로 기부 감사패를 전달했다. 대구 사랑의열매 강주현 사무처장은 “돌아가신 아내가 남긴 유산을 기부하기로 한 사연이 큰 울림을 준다”며, “소중하고 고귀한 성금이 이웃에게 잘 전달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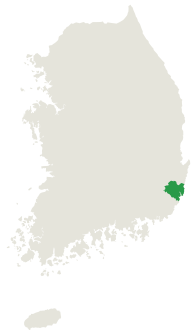
남편 손전현 씨가 아내 김현화에게 보내는 편지

당신을 사랑한 폐암이 이렇게까지 빨리 당신을 저 먼 곳으로 데려갈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 했소.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을 정도가 됐다는 말을 들으니 한 대 얼어붙은 듯하더이다. 그렇게 투병 생활이 시작됐지. 당신은 그때부터 혼자 밥을 나를 걱정하기 시작하는 듯하더이다. 치료받을 때 멀리서 당신과 눈이 마주쳤는데, 당신의 눈빛이 “저 양반, 혼자 밥이면 어저나” 하고 말하는 것 같았소. 많은 살림에 병원비까지 나가면 내가 힘들까 봐 호스피스 병원으로 안 간다 하며 죽을 때까지 내 걱정만 하다가 간 불쌍한 사람... 당신이 떠난 뒤 당신이 나를 위해 약간의 돈을 모아왔다는 사실을 알았는데, 그 돈만 있었더라면 당신을 더 오래 볼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소. 이걸 쓰려면 당신의 목숨을 끌어 쓰는 것 같아서 도저히 손을 못 대겠더이다. 그래서 당신 죽어서도 좋은 데 가라고 좋은 곳에 기부했소. “당신 쓰라고 남긴 돈인데 왜 기부했느냐”라고 한 소리 할 당신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하지만, 괜찮소. 산 입에 거미줄 치겠소? 난 오지려 내 아픔을 털어놓을 사람, 같이 병원에 가줄 수 있는 사람, 길상을 함께할 사람이 사라져 너무 가슴이 아프오. 서로 의지하며 살았는데 이젠 진짜 혼자가 됐구려. 떠나간 당신, 사랑하고 너무 고맙소.

(2023년 3월 16일 매일신문 발췌)



손전현 씨가 아내故 김현화 씨와 함께 정동진역으로 여행 갔을 때 찍은 사진



2023 울산 아너 소사이어티 클럽 총회 및 아너 회장 이·취임식 개최 행복한 나눔을 위한 새로운 도약

울산 아너 클럽이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아울러 신임 회장을 추대하며 지역사회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나눔을 펼칠 예정이다.

글 강은진 사진 울산사랑의열매, 경상일보



2023 울산 아너 소사이어티 클럽 정기총회 및 아너 회장 이·취임식 기념사진

총회 개최 및 신규 회원 가입

지난 4월 12일, 지역사회 나눔문화를 선도하는 울산 사랑의열매 아너 소사이어티 클럽이 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울산 아너 클럽 회원 60여 명과 김두겸 울산광역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칙 개정 및 임원 선임 안건 등을 논의했으며, 그 결과 OK안전물산 대표 박정희 아너가 추대되어 제6대 아너 회장으로 취임했다. 또 (주)인터맥 천성관 대표이사과 대우여객자동차(주)·우리버스(주) 김익기 대표이사가 각각 117호와 118호 아너 회원으로 신규 가입하며 인사를 나누었다. 2년간 아너 클럽을 이끈 박환규 이임 회장은 마지막 인사를 통해 “박정희 회장을 중심으로 울산 아너 클럽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해 회원들에게 큰 박수를 받았다.

신임 회장의 포부

박정희 신임 회장은 울산 22호 아너이자 3호 부부 아너(남편은 울산 아너 50호 박철수 前 바르게살기운동남구협의회 회장)이다. 평소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성품으로 다양한 기부와 봉사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왔다. 박정희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아너 회원들의 나눔이 보다 행복하고 가치있는 일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면서 포부를 밝혔다.

봉사에 앞장서는 아너 클럽

코로나19로 중단한 봉사 활동도 재개했다. 아너 클럽 회원들은 3년 만에 ‘2022 울산 아너 소사이어티 봉사 활동’을 진행하며, 특식과 떡을 준비해 선암호수노인복지관에 전달했다. 또 회원들은 현장에서 300여 명의 어르신에게 직접 무료 급식 배식 활동을 하며 그 의미를 더했다. 지역사회를 위한 이 같은 아너 클럽 회원들의 따뜻한 나눔은 앞으로 계속 이어질 예정이다. 울산 사랑의열매 전영도 회장은 “아너 회원들이 있기에 울산이 보다 따뜻해질 수 있다”면서, “사랑의열매도 아너 클럽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

“아너 회원들의 나눔이
보다 행복하고 가치있는
일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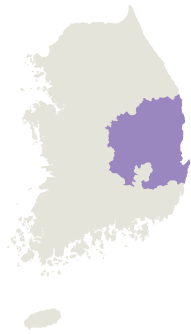
- 울산 아너 클럽 박정희 회장



제6대 울산 아너 클럽 신임 회장으로 취임한 OK안전물산 박정희 대표(경상일보 제공)



코로나19로 중단한 봉사 활동을 3년 만에 재개한 울산 아너 클럽 회원들



김천의 나눔문화를 선도하는 한국도로공사

“나눔의 길을 열어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한국도로공사가 김천시를 비롯한 경북 지역의 나눔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이웃을 위한 따뜻한 질주를 따라가보자. 글 강은진 사진 경북 사랑의열매



김천실내체육관에서 열린 V리그 플레이오프전에 앞서 진행된 성금 전달식

이웃 위한 따뜻한 득점!

지난 3월, 한국도로공사(사장 함진규)는 김천시 희귀 난치병 어린이의 치료를 위해 'ex-사랑 기금' 3,800만 원을 경북 사랑의열매에 전달했다. ex-사랑 기금은 한국도로공사 하이패스배구단이 V리그에서 치른 경기 결과에 따라 1경기 승리 시 100만 원, 경기 중 서브·블로킹·후위 공격특점 시 각각 3만 원을 적립해 기부하는 사회 공헌 사업이다. 한국도로공사는 2015년부터 기금을 모아 9년째 경북 사랑의열매에 전달하고 있다. 이는 여자 배구단 중 가장 오랫동안 지속된 단일 기부로 손꼽힌다. 현재까지 누적된 적립 기부금만 총 2억 4,200만 원에 달한다. ex-사랑 기금은 지금까지 경북 김천시 지역의 희귀 난치병으로 힘들어하는 8명 이웃의 치료비로 지원했다. 또 이번에 전달받은 기금 역시 김천 지역 내 희귀 난치병 어린이 12명의 치료비로 사용할 예정이다. 김천 지역에서 한국도로공사 하이패스배구단의 승리 소식은 곧 이웃들의 희망 소식으로 전해진다. 그만큼 한국도로공사를 응원하는 시민이 많다. 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스파이크가 아닐 수 없다.

경북 곳곳에 나눔 전해

한국도로공사의 나눔은 김천시를 넘어 경북 지역으로 퍼져갔다. 특히 지난해 여름, 무더운 날씨에 바람 한 점 통하지 않는 방호복을 입고 마스크로 중무장한 채 방역의 최전방에서 코로나19와 싸우던 의료진을 위해서도 한국도로공사가 나섰다. 대구 경북 72개소 선별진료소에 아이스 조끼 1,440벌과 휴대용 넥 선풍기 1,152개를 전달하며 의료진들의 더위를 조금이나마 식혀주고자 했다. 그뿐 아니다. 추운 겨울이 시작되는 11월이면 김천은 물론 경북 곳곳의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위해 연탄 나눔 봉사 활동도 실천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 직원들은 직접 연탄을 구매해 가가호호 방문하며 나누어주는 수고를 아끼지 않는다. 이때 쌀과 등유 등 다양한 물품까지 함께 전달하며 이웃들이 조금이나마 따뜻한 겨울을 지낼 수 있도록 배려한다. 성금 기부부터 봉사 활동까지 이웃을 위해 아낌없이 나눔을 이어가고 있는 한국도로공사. 나눔의 길을 열어 행복한 세상을 만들고자 노력하는 한국도로공사의 헌신에 큰 박수를 보낸다. ♣



한국도로공사 임직원의 연탄 봉사 현장

“하이패스배구단을 응원해 주시는 팬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에 앞장서겠습니다.”

- 한국도로공사 손진식 부사장





위기를 기회로 만든 경남 사랑의열매의 따뜻한 지원 “부산·경남 최초 중증장애인 생산품 인증 마스크를 아시나요?”

김해시장장애인근로사업장 성공 스토리가 화제다.
일자리 창출부터 매출까지 상승장구하고 있기 때문! 그 비결은 무엇일까? 글강은진 사진경남 사랑의열매



김해시장장애인근로사업장은 김해 사회복지시설에 직접 생산한 마스크 1만 장을 기부하며 나눔의 선순환을 보여주었다. 사진은 전달식 모습

“경남 사랑의열매 지원은 장애인의 자존감을 높이는 데 좋은 기회가 됐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 인식 개선과 사회 환원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실천해가겠습니다.” - 김해시장장애인근로사업장 송대상 대표

위기를 기회로 만든 지원

김해시장장애인근로사업장의 성공이 언론에 소개되며 화제가 되고 있다. 김해시장장애인근로사업장은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만드는 장애인 직업 재활 시설이다. 원래 인쇄 사업에 주력해왔으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수익이 감소하면서 장애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기 어려울 정도로 경영이 악화됐다. 김해시장장애인근로사업장은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2년 4월부터 주력 사업을 마스크 사업으로 전환했다. 그러나 전체 매출액의 32%가 마스크 매출액일 정도로 성과를 거두었음에도 식약처 인증을 받지 못한 탓에 판로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따랐다. 식약처 인증을 위해서는 제조 공간을 분리하는 클린룸이 필요했지만, 예산 부족으로 엄두도 내지 못하는 실정이었다. 그때 손을 내민 곳이 경남 사랑의열매였다.



식약처 인증으로 매출 상승

김해시장장애인근로사업장은 경남 사랑의열매 지원으로 보건용 마스크를 생산하기 위한 클린룸을 조성한 후 2022년 12월 드디어 식약처의 의약품 제조업 허가를 받았다. 이후 본격적으로 KF94 마스크를 생산하며 인증받지 못하던 1년 전보다 매출이 4배 이상 증가하는 등 성과를 내기 시작했다. 그뿐 아니라 장애인 근로자 10명을 신규 채용하는 등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소득 증대에도 기여했다. 또 경남 지역 장애인 직업 재활 시설 중에서는 유일하게 마스크를 생산하는 김해시장장애인근로사업장은 부산·경남 최초로 보건용 마스크 품목에 대한 중증장애인 생산품 인증까지 받아 그 의미를 더했다. 나눔의 선순환도 이어졌다. 김해시장장애인근로사업장은 취약 계층의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해 김해 지역 사회복지시설에 직접 생산한 KF 인증 마스크 1만 장을 기부하는 등 사회적 나눔 가치 확산에도 크게 한몫한 것이다. 경남 사랑의열매의 지원이 만들어낸 김해시장장애인근로사업장의 따뜻한 성공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한다. 🍀



식약처 인증을 받은 후 장애인 근로자 10명을 신규 채용하는 등 사업은 급성장했다.

의료계 사회 공헌의 모범을 보여주는 제주대학교병원 “사랑을 나누고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전 직원이 함께하며 뜻깊은 나눔을 보여주는 곳!
지역사회를 위해 지속적으로 사회 공헌 사업을 펼쳐온 제주대학교병원이다.

글강은진 사진제주 사랑의열매



제주대학교병원 임직원 일동 성금 전달식. (왼쪽부터) 제주 사랑의열매 박은희 사무처장, 강지연 회장, 제주대학교병원 강사윤 병원장 직무대행, 의료연대본부 제주지역지부 양연준 지부장

전 직원이 참여하는 나눔

올해도 어김없이 제주대학교병원의 나눔은 이어졌다. 지난 3월, 제주대학교병원 소회의실에서 제주대학교병원 임직원이 십시일반 모은 성금 2,336만 8,930원을 제주 사랑의열매에 기탁하는 전달식이 있었다. 제주대학교병원 임직원은 지난 2003년부터 꾸준히 기부를 실천해왔으며, 지금까지의 누적 기부액은 1억 4,000여만 원 정도 된다. 무엇보다 일부 직원이 아닌 1,800여 명에 달하는 전 직원이 빠짐없이 기부에 동참해 그 의미가 남다르다. 이처럼 진심 어린 나눔을 실천해온 제주대학교병원의 사회 공헌 활동은 의료계 전체에 좋은 모범이 되고 있다.



지난해 3월 진행한 사랑나눔병원 협약식

제주 사랑나눔병원 1호

사랑나눔병원 1호 가입이 대표적 예다. 사랑나눔병원은 기관 및 직원이 단체로 일정 금액 이상 정기 기부하는 제주 사랑의열매의 의료계 맞춤형 사회 공헌 프로그램이다. 2022년 3월, 제주대학교병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지역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에게 지역 리더 그룹인 의료계가 나눔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희망의 가치를 전하고자 가장 먼저 사랑나눔병원에 가입했다. 이후 도내 종합병원을 비롯해 치과, 약국 등의 가입이 이어지며 의료계 나눔을 선도하는 제주대학교병원의 선한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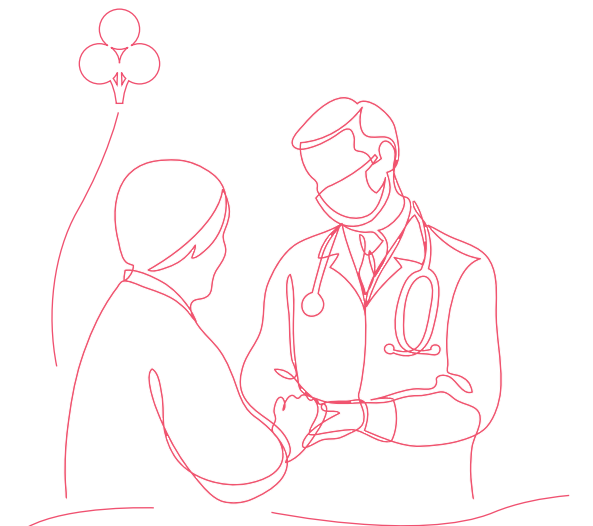
“어려운 환경 속에서 고생하시는 도민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나눔을 실천해가겠습니다.”

- 제주대학교병원 강사윤 병원장 직무대행

의료계 사회 공헌의 본보기

이 밖에도 제주대학교병원은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

- 제주 사랑의열매와 함께하는 취약 계층 관절 수술비 지원 사업
- 건강 장애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병원학교
- 청각장애 아동들에게 재활 공간을 제공하는 KT꿈품교실 등이다. 이뿐 아니라 관절 수술 지원 대상자 중 열악한 주거 환경으로 신체 활동 개선 및 재활에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대상자 발굴에도 적극 동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제주대학교병원은 의료계 사회 공헌 활동의 좋은 본보기를 제시하며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에 적극 참여할 예정이다. 🍀





참 좋은 당신이 있어 세상이 1°C 따뜻해집니다

전국 3108호(강원 103호)



송호준 연세플러스비뇨기과 원장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말처럼
뒤에서 조용히 기부하고 싶었지만,
내가 먼저 앞장선다면 누군가가 뒤를 이어 기부에
동참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희망을 선물하겠습니다.”

전국 3111호(제주 137호)



현승명 청송영농조합법인 대표

“나눔은 우리의 의무이자 최고의 미덕입니다.”

서울 박종애 울산 천성관(주)인터맥 대표이사, 김익기 대우여객(주)·우리버스(주) 대표이사, 김찬수 드림종합건설(주) 대표이사, 김연숙(주)진우금속
경기 양주시 상도일렉트릭(주) 감사 세종 박루하, 전성미(주)도광 대표이사

전국 3120호(강원 104호)



심호섭(주)이수상사 대표

“십시일반 나누는 것이 상생의 길입니다.”

전국 3122호(경북 155호)



김원한 덕은종합건설(주) 대표

“의성군 내 이웃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또 저의 나눔을 지켜보는 가족도 나눔에 동참하는
마음이 생겼으면 합니다.”

전국 3128호(경기 309호)



정해린 삼성물산 사장

“모두와 함께하는 미래를 꿈꿉니다.
앞으로도 응원과 지지를 보내겠습니다.”

전국 3139호(경기 311호)



박향진 의료법인 호원병원 이사장

“삶에서 항상 아래를 보고 살면 내가 가진 것이
커 보입니다. 나눔에는 크기가 없습니다.”

전국 3121호(경북 154호)



이형주 희성산업(주)·(주)지엠솔루션 대표

“오래전부터 선한 영향력을 펼치는 분들을 보며
그동안 받은 도움을 조금이나마 보답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웃이 꿈을 갖고 살아가는 데
다소나마 보탬이 되고 싶습니다.”

전국 3125호(전남 140호)



김성훈 김성훈이비인후과 원장

“장흥 지역의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전국 3129호(대구 216호)



허 임종규 변호사

“최선을 다하자.”

중앙회

튀르키예·시리아 지진 피해 특별 모금 145억 원 모어



사랑의열매는 지난 2월 8일부터 3월 31일까지 튀르키예·시리아 지진 피해 복구를 위한 특별 모금을 진행했다. 약 2개월 동안 모금한 성금은 144억 9,753만여 원에 달한다. 특별 모금에는 많은 기업과 단체가 동참했다. SK그룹 12억 6,000만 원, KT 10억 원, S-OIL 6억 4,000만 원, 롯데그룹 6억 3,000만 원, 하나금융그룹 3억 8,000만 원, 우리금융그룹 3억 8,000만 원, 신한금융그룹 3억 원, CJ그룹 3억 원, LS그룹 2억 5,000만 원, 동원F&B 1억 8,000만 원, 애경산업 1억 7,000만 원, 대한주택건설협회 1억 6,000만 원, 강원도 및 도청 직원 일동 1억 4,000만 원, 바르게살기운동 전국 회원 일동 1억 4,000만 원, 아모레퍼시픽 1억 3,000만 원, 부산광역시어린이집연합회와 대한노인회가 각각 1억 2,000만 원, (주)성우하이텍·서귀포중앙교회·(주)시이나·SGI서울보증·신양촌소비조합주식회사·(주)텐마인즈 및 직원 일동이 각각 1억 원을 기부했다. 또한 카카오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 10억 원, NCT 도영·NCT 해찬, SK네트웍스 최신원 前 회장과 영생당한약방 임숙현 대표가 각각 1억 원을 기부하는 등 연예계를 포함한 개인 기부 참여가 이어졌다. 네이버 해피빈과 카카오 같이가치 등 온라인 기부로는 14억 5,000만 원을 모금했다.

사랑의열매는 지난 2월 8일부터 3월 31일까지 튀르키예·시리아 지진 피해 복구를 위한 특별 모금을 진행했다. 약 2개월 동안 모금한 성금은 144억 9,753만여 원에 달한다. 특별 모금에는 많은 기업과 단체가 동참했다. SK그룹 12억 6,000만 원, KT 10억 원, S-OIL 6억 4,000만 원, 롯데그룹 6억 3,000만 원, 하나금융그룹 3억 8,000만 원, 우리금융그룹 3억 8,000만 원, 신한금융그룹 3억 원, CJ그룹 3억 원, LS그룹 2억 5,000만 원, 동원F&B 1억 8,000만 원, 애경산업 1억 7,000만 원, 대한주택건설협회 1억 6,000만 원, 강원도 및 도청 직원 일동 1억 4,000만 원, 바르게살기운동 전국 회원 일동 1억 4,000만 원, 아모레퍼시픽 1억 3,000만 원, 부산광역시어린이집연합회와 대한노인회가 각각 1억 2,000만 원, (주)성우하이텍·서귀포중앙교회·(주)시이나·SGI서울보증·신양촌소비조합주식회사·(주)텐마인즈 및 직원 일동이 각각 1억 원을 기부했다. 또한 카카오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 10억 원, NCT 도영·NCT 해찬, SK네트웍스 최신원 前 회장과 영생당한약방 임숙현 대표가 각각 1억 원을 기부하는 등 연예계를 포함한 개인 기부 참여가 이어졌다. 네이버 해피빈과 카카오 같이가치 등 온라인 기부로는 14억 5,000만 원을 모금했다.

사랑의열매 25주년 기념 엠블럼 공개

사랑의열매가 2023년 창립 25주년을 맞아 기념 엠블럼을 선보였다. 엠블럼에는 '해피 골드(Happy Gold)' 색상을 사용했다. 사랑의열매가 새롭게 개발한 색으로, 25년간 사랑의열매가 확산해온 나눔의 변하지 않는 가치를 상징한다. 기관 영문명(Community Chest of Korea)으로 감싼 숫자 25와 열매는 모금과 배분, 사랑의 열매와 기부자, 기부자와 배분 기관 등을 연결해온 25년간의 역사와 정체성을 나타낸다. 여기에 '대한민국 나눔플랫폼' 슬로건을 더해 모금과 배분을 동시에 수행하는 사랑의열매의 사회적 역할을 강조했다. 사랑의열매는 중앙회와 전국 17개 시도 지회에서 전달하는 현판을 비롯해 다양한 홍보 물품에 25주년 기념 엠블럼을 활용할 계획이다. 사랑의열매 황인식 사무총장은 "25주년 엠블럼은 단순히 기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대표 나눔플랫폼으로 사회적 역할을 되새기려는 사랑의열매의 의지를 나타낸다"고 전했다.



서울

<순정파이터> 이재원 경장, 나눔리더 가입



SBS 격투 예능 <순정파이터>에 출연해 지난 2월 25일 로 드FC 데뷔전을 치른 현직 경찰 이재원 경장이 서울 나눔리더 156호로 가입했다. 데뷔전으로 받은 파이트머니 100만 원을 아동 학대 피해자 지원을 위해 기부한 이재원 경장은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나눔을 실천하게 돼 뜻깊다"며 "아이들이 자유롭게 꿈꾸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주)코스콤, 나눔명문기업 가입으로 나눔 동참



자본시장 IT 전문 기업 (주)코스콤(대표이사 홍우선)이 서울 55호 나눔명문기업에 이름을 올렸다. 2010년부터 14년째 나눔을 이어오고 있는 (주)코스콤은 지난 2월 튀르키예·시리아 지진 피해 복구 지원 성금 5,000만 원을 기탁한 바 있다. 홍우선 대표이사는 "업계 발전을 위한 기술적·사업적 역할은 물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 되겠다"고 말했다.

부산

행복한 남구 만드는 나눔리더 5인 단체 가입



지난 4월 4일 남구 지역 나눔리더 단체 가입식이 열렸다. 2021년과 2022년에 이어 세 번째 단체 가입이다. 대박집물회 장미경 대표, (주)조광 이용석 대표, 문현금융단지주유소 황성문 대표, 컴솔텍 박용희 대표, 용호3동복지계획추진단 김동섭 단장까지 총 5명이 부산 남구 나눔리더로 가입하며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자립준비청년 네트워크 구축 사업에 2억 원 지원



부산 사랑의열매가 자립준비청년들의 심리·정서적 지지 체계를 형성하기 위한 사회적 네트워크 구축 사업을 지원하는 데 2억 원을 배분했다. 해당 사업은 보호 종료 후 연락이 두절된 청년을 신속하게 발굴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자립 준비 단계부터 심리·정서적 지원을 실시한다. 지원금은 부산광역시보호아동자립지원센터에 전달했다.

대구

(주)세양, 튀르키예·시리아 지진 피해 복구 성금 전달



(주)세양(대표이사 신정필)이 튀르키예·시리아 지진 피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한 성금 3,000만 원을 대구 사랑의열매에 전달했다. 신정필 대표이사는 “이재민에게 다소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치과용 핸드피스 제조 기업 (주)세양은 수입에 의존하던 치과용 전기 엔진을 국내 최초로 국산화해 세계 120여 개국에 수출하고 있다.

PHC큰나무복지재단, 긴급 위기가구에 1억원 쾌척



PHC큰나무복지재단이 이웃 돕기 성금 1억 원을 기탁하며 대구 7호 나눔명문기업으로 가입했다. 성금은 대구 지역 어려운 가구의 생계비 및 의료비 긴급 지원에 사용할 예정이다. PHC큰나무복지재단은 매년 취약 계층 장학금 및 생계비 지원, 사회복지시설 지원 등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을 꾸준히 펼치고 있다.

광주

아너소사이어티 회원의 집, 헌판 전달



광주 사랑의열매가 지난 4월 광주 33호 아너 (주)아로마라이프 이학재 대표와 광주 39호 아너 (주)메르시라이프 이광은 대표에게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의 집’ 헌판을 전달했다. 이학재 대표는 “아너 회원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활동하겠다”고 말했다. 광주 사랑의열매는 앞으로 나눔문화 활성화에 기여한 아너 회원에게 해당 헌판을 전달할 예정이다.

아너 회원과 함께 친선골프대회 개최



광주 사랑의열매가 광주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과 함께하는 친선 골프 대회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광주 사랑의열매 직원과 아너 회원 22명이 참석해 화합을 다졌다. 광주 사랑의열매 박철홍 회장은 “회원들이 어울려 친목을 도모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골프 대회를 개최했다”며 “나눔에 앞장서는 아너 회원들의 성장과 발전을 바란다”고 말했다.

인천

인천광역시·인천도시공사, 주거복지서비스 업무 협약 체결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와 인천도시공사(사장 조동암)가 ‘IHUG 주거 서비스’ 사업 공동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사업으로 공공 임대주택 입주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노인 일자리, 이와 연계한 돌봄 사업 및 1인 가구와 장애인, 고령층을 위한 맞춤형 주거 서비스 등 5개 분야에서 15개 세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한국남동발전 영흥발전본부, 전통시장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 지원



한국남동발전 영흥발전본부(본부장 김종현)가 전통시장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을 마무리하고 기념식을 진행했다. 영흥발전본부는 석바위시장 34개 점포를 시작으로 만수시장 18개 점포, 신포국제시장 34개 점포의 노후한 조명 514개를 LED 전등으로 교체했다. 전기 요금 환산 시 연간 570만 원 정도의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대전

(주)디앤에스코스메디끄, 화장품 및 영양제 기탁



기능성 화장품 브랜드 바르셀과 건강 기능 식품 브랜드 모마네를 운영하는 (주)디앤에스코스메디끄(대표 김우준)가 대전 사랑의열매에 2,200만 원 상당의 화장품과 영양제를 기탁했다. 기탁받은 물품은 대전 관내 복지시설 및 취약 계층 어르신들에게 지원했다. 김우준 대표는 “앞으로도 지역을 위한 나눔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하나은행 충청영업그룹 임직원, 나눔 경매 성금 기부



하나은행 충청영업그룹(부행장 이성진) 임직원이 ‘아름다운 나눔 경매’ 행사로 모금한 성금 500여만 원을 기부했다. 아름다운 나눔 경매는 임직원의 자발적 물품 기부와 경매 참여로 진행되는 사회 공헌 활동이다. 이성진 부행장은 “직원들의 소중한 마음을 모아 나눔에 참여해 의미가 깊다”며, “지역사회를 위한 금융기관이 되겠다”고 말했다.

울산

현대자동차(주) 노사, H-지역동행 기금 전달식 진행



지난 3월 16일 현대자동차(주) 노사가 'H-지역동행' 기금 전달식을 진행하고, 울산 사랑의열매에 1억 500만 원을 기탁했다. H-지역동행은 현대자동차(주) 노사가 2018년부터 울산 북구 및 8개 동지역보장협의체와 협약을 맺고 취약 계층을 맞춤 지원하는 사회 공헌 사업이다.

(주)케이엔 김진규 회장, 태연재활원에 후원금 전달



울산 아너 회원인 (주)케이엔 김진규 회장이 태연재활원(원장 장용석)에 2,000만 원의 성금을 지정 기탁했다. 지난 3월 20일에 진행된 전달식에는 김진규 회장과 태연학원 오세필 대표이사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김진규 회장은 "태연재활원의 차량이 노후해 원생들의 불편함이 크다는 이야기를 듣고 후원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경기북부

민관 협력 사업 '이웃의 재발견: 양주 당근이' 사업 발대식



지난 3월 28일 경기북부 사랑의열매가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민관 협력 사업 '이웃의 재발견: 양주 당근이' 사업 발대식을 진행했다. 양주 당근이는 '양주 당근 근처의 이웃'의 출입말로, 다양한 사업을 통해 지역 주민이 직접 위기 가구 해소에 앞장설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양주시와 양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함께 실시한다.

(주)와이알 김중수 대표, 나눔리더 가입



토목 기술 회사 (주)와이알 김중수 대표가 나눔리더에 가입했으며, 임직원 14명이 착한일터에 가입했다. 김중수 대표는 100만 원을 일시 기부하고, 향후 2년간 매월 30만 원 기부를 약정해 총 820만 원을 기부할 예정이다. 김중수 대표는 "나눔에 동참해준 직원들에게 고마움을 전한다"며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주)와이알이 되겠다"고 말했다.

경기

프로 골퍼 김수지, 아너 가입으로 이웃사랑 실천



KLPGA 프로 골퍼 김수지 선수가 경기 사랑의열매 308호 이자 용인 44호 아너 회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김수지 선수의 성금은 자립준비청년을 위해 사용할 계획이다. 어린 시절부터 지속적으로 기부를 실천하고 있는 김수지 선수는 "더 많은 분에게 따뜻한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가입 소감을 전했다.

의왕예술의거리 상인회, 착한가게 단체 가입



지난 3월 29일 경기 사랑의열매가 착한가게에 단체 가입한 의왕예술의거리 상인회(상인회장 한상규) 소속 21개 업체에 착한가게 현판을 전달했다. 한상규 상인회장(밥한술 대표)은 "지역을 위해 나눔에 동참하자는 뜻을 모아 단체 가입을 추진했다"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이웃에게 다소나마 도움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강원

강원도교육청, '제자사랑 더나눔 캠페인' 업무 협약



강원도교육청이 강원 사랑의열매와 '제자사랑 더나눔 캠페인' 업무 협약을 맺었다. 이번 캠페인은 제자를 돕는 모금 활동에 교직원의 참여를 독려하고, 건전한 나눔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기획했다. 캠페인 성금은 저소득 가정 아동·청소년의 돌봄 및 교육 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강원도 내 복지사업에 사용할 예정이다.

강원도 우수 사회 공헌 기업·단체에 감사패 전달



강원 사랑의열매가 (주)강토개발, (주)대우레미콘, (주)배꼽에너지, (주)삼봉레미콘, (주)유진아이엠씨, (주)이가, (주)이레이앤엘,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강원도회, 더팜코리아, 보성엔티, 웰텍(주), 주식회사월드개발, 한국동서발전(주) 동해발전본부, 한일현대시멘트(주)영월공장, 화성개발(주) 등 나눔에 앞장선 15개 기업과 단체에 감사패를 전달했다.

충북

충북리더스클럽, 곽쌍둥이소망기금 성금 기탁



충북리더스클럽(회장 장현봉)이 곽쌍둥이 소망기금에 500만 원을 기탁했다. 해당 기금은 2020년 쌍둥이 출산 후 2023년에 또 한 번 쌍둥이를 출산하고, 결핵성 척추염에 걸려 허반신마비가 된 산모를 위해 조성했다. 충청북도 이우종 행정부지사는 "곽쌍둥이 가정이 희망을 갖고 일어설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셔서 감사하다"고 전했다.

청주성모병원, 아동쉼터 3개소에 1,500만 원 후원



청주성모병원(병원장 이준연)이 충청북도 내 학대 피해 아동을 지원하기 위해 충북 사랑의열매에 성금 1,500만 원을 전달했다. 개원 25주년을 맞아 다양한 사회 공헌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청주성모병원의 성금은 학대 피해 아동쉼터 3개소에 각각 500만 원씩 지원했다. 이준연 병원장은 "아동이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북

전북일보, 소아암 환우 돕기 골프대회 성금 기탁



전북일보(회장 서창훈)가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기념 도민 화합 및 소아암 돕기 골프대회'를 진행했다. 대회에 참가한 JNG 박중우 대표가 4년 연속 성금 1,000만 원을 기탁했으며, (주)동해금속 서동해 대표이사가 1,000만 원, NH농협은행 전북본부가 500만 원을 기탁해 총 2,500만 원의 성금을 전북 사랑의열매에 전달했다.

사회복지기관 13개소에 복지 현안 지원 사업비 배분



전북 사랑의열매가 긴급한 사회문제 및 복지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비 8,260만 원을 도내 사회복지 기관 13개소에 배분했다. 지원금은 저소득 생활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노후 시설 개·보수와 생활 시설 냉방기 지원, 청소년 자살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는 데 사용될 계획이다.

충남

충청남도개발공사, 도내 산불 피해 복구 지원 성금 전달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관)가 충남 5개 시군에서 발생한 산불 피해 복구 및 이재민 지원을 위한 성금 3억 원을 충청남도에 전달했다. 성금은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장비 마련과 이재민 생활 안정 등 긴급 자금 지원에 사용했다. 충청남도개발공사는 2022년 한 해 동안 40여 건의 사회 공헌 활동을 실시하고, 체계적 나눔 경영을 실천하고 있다.

한화토탈에너지스, 서산시에 6억 6,700만 원 쾌척



한화토탈에너지스가 서산시에 사회 공헌 기금 6억 6,700만 원을 전달했다. 기금은 서산시 관내 사회복지시설과 기관 및 서산교육지원청에 전달했으며, 취약 계층을 위한 사회복지사업과 지역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 프로그램 운영에 사용할 예정이다. 한화토탈에너지스 임직원은 매년 급여의 0.5%를 기부하고 있다.

전남

남화산업(주) 무안컨트리클럽, 나눔명문기업 가입



남화산업(주) 무안컨트리클럽(회장 최재훈)이 전남 7호 나눔명문기업으로 가입했다. 최재훈 회장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회사가 성장한 만큼, 이웃과 함께 나아가기 위해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전했다. 남화산업(주) 무안컨트리클럽은 2002년부터 장학금 지원 등 지금까지 5억 1,900만 원을 기부하며 나눔에 앞장서고 있다.

거동 불편한 신안군민 위한 이동 세탁 차량 지원



전남 사랑의열매가 신안군에 이동 세탁 차량을 지원했다. 차량은 신안풍력발전사업협회가 기부한 1억 2,600만 원을 포함해 전남 사랑의열매가 2억 3,300만 원을 지원해 제작했으며, 신안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운영한다. 4.5톤 특장차에 24kg 드럼 세탁기 10대를 탑재해 거동이 불편한 취약 가구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경북

한국수력원자력(주) 한울원자력본부, 사랑의 집수리 600호 달성



한국수력원자력(주) 한울원자력본부(본부장 박범수, 이하 한울본부)의 사회 공헌 특화 사업 '사랑의 집수리'가 600호를 달성했다. 해당 사업은 열악한 주거 환경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주민 체감형 사업의 대표 사례로 평가받는다. 한울본부는 2023년에도 사랑의 집수리 사업에 4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대한노인회 경북연합회, 연합 모금 협약 체결



대한노인회 경북연합회(회장 양재경)가 경북 사랑의열매와 '어르신이 행복한 경북을 위한' 연합 모금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은 경상북도 내 경로당의 자발적 모금 참여로 재원을 조성하며, 지역사회에 나눔문화를 확산하고 노인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협약에 따라 경북 사랑의열매가 모금액의 30%를 추가해 노인복지사업에 사용한다.

제주

제주농협하나로마트협의회, 2023년 공익 기금 전달



제주농협 하나로마트협의회가 지난 4월 11일 정기총회를 열고 2023년 공익 기금 4억 1,600만 원을 제주 사랑의열매에 기탁하기로 약속했다. 제주 지역 농협들은 2011년부터 매년 하나로마트 수익금 일부를 공익 기금으로 조성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에 지원하고 있다. 지금까지 성금 36억 8,000만 원을 공익 기금으로 출연했다.

고경준 아너, 시화전 수익금 1,004만 원 기부



제일농장 대표인 고경준 아너가 3월 24~28일에 개최한 시화전 <시와 나눔 II>의 수익금 1,004만 원을 제주 사랑의열매에 기부했다. 성금은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 도내 푸드뱅크와 푸드마켓에 지원했다. 고경준 아너는 지난 2022년에도 시화전 수익금 1,004만 원을 우크라이나 전쟁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해 기부한 바 있다.

경남

송재욱·박소은 부부, 나눔 결혼식으로 나눔리더 동시 가입



지난 4월 8일 백년가약을 맺은 송재욱·박소은 부부가 경남 나눔리더에 가입했다. 부부는 한 번뿐인 결혼식의 의미를 더하기 위해 나눔을 실천한 것. 성금은 경상남도 내 저소득 가구의 의료비 및 생계비로 쓸 예정이다. 박소은 씨는 "아버지의 영향으로 나눔에 관심을 가졌다"며 "나눔으로 소중한 추억을 만들 수 있어 의미가 깊다"고 전했다.

배분 사업 우수 기관 포상식 개최, 3개소에 표창 수여



경남 사랑의열매가 지난 4월 11일 '배분 사업 우수 기관 포상식'을 개최했다. 사단법인함께꿈을그리다 목양비전지역 아동센터와 생명터미혼모자이집, 창녕군장애인종합복지관 총 3개소를 선정해 우수 기관 표창을 수여했다. 경남 사랑의열매는 매년 공모 사업 진행 결과를 검토해 사업 수행 능력이 우수한 기관을 선정하고 있다.

세종

(사)세종여성기업인협의회, 취임식 축하 쌀 기탁



(사)세종여성기업인협의회(회장 김영숙)가 지난 3월 21일 공식 출범을 알리는 회장 취임식에서 축하 화환 대신 받은 쌀 1,200kg을 세종 사랑의열매에 전달했다. 쌀은 세종시 취약 계층 다문화 여성과 아동·청소년에게 전달했다. 김영숙 회장은 "첫 출발의 의미를 담은 쌀이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다소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2023년 주거 환경 개선 사업 지원금 1억 5,000만 원 배분



세종 사랑의열매가 2023년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을 시행한다. 지난 3월 16일 함께 사업을 실시할 세종시자원봉사센터, 세종시사회복지협의회, 세종시종합주거복지센터가 참석한 가운데 배분금 전달식과 수행 안내 교육을 진행했다. 2022년에는 세종시 관내 34가구의 집수리를 지원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제공했다.



동생/이상한 누나/이상해 3화

이상한 이상해씨

회사 단톡방

하지만 난 별로 식물에 관심 없기에 패스

집

영... 이걸 기르기 까다로운 건데... 울마 아이비... 몬스테라

누나는 식물 볼 줄 모르잖아. 좀 줘볼래?

이거 되팔면 맞십, 아니 백만 원 넘게 받을 텐데...

다음날

해해, 혹시 남은 식물 좀 가져갈 수 있을까요?

다 쓸어 갔네. 비싼 건 알아서 다 가져가더군. 남은 건 이 아이비 뿐이야.

소중히 키워주게.

엄마~ 화분 얻었는데 어따 둘까?

베란다에 내놔.

며칠 후

누나, 화분 하나 더 필요할 것 같은데?

엄마~ 화분 좀 주게.

엄마

사랑 가득히 물을 주도록 엄마한테서 가질 선물해줄게. 2024년 말



사랑의열매와 소중한 진심을 전하세요

중앙회	02-6262-3000	서울지회	02-3144-0101
부산지회	051-790-1400	대구지회	053-667-0530
인천지회	032-456-3333	광주지회	062-222-3566
대전지회	042-347-5171	울산지회	052-270-9000
경기지회	031-220-7900	경기북부	031-906-4028
강원지회	033-244-1662	충북지회	043-238-9100
충남지회	041-635-0340	전북지회	063-282-0606
전남지회	061-902-6800	경북지회	054-650-2600
경남지회	055-270-6700	제주지회	064-755-9810
세종지회	044-863-5400		



사랑의열매 다양한 기부 방법

ARS 060-700-1212 (한 통화에 3,000원)

문자 #9004 (한 통화에 2,000원)

QR 기부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스캔

기념일 기부 좋은 날, 기쁜 마음을 함께 나눠요 문의 02-6262-3084

계좌 기부 예금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국민 003137-04-000306 농협 1082-01-001966 신한 100-013-446845 외환 068-13-21097-3 우리 052-581567-13-101 하나 399-810005-31705

상담 혹은 문의가 필요하다면 080-890-1212